

2005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목회적용 연구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구 복 조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목회적용 연구

지도교수 황 성 철

이 논문을 신학석사 학위(Th.M)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2월 15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 전공

구 복 조

구 복 조의 신학석사(Th.M) 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황성철 (인)

심사위원 김일우 (인)

심사위원 류응걸 (인)

2005년 12월 15일

총신대학교 대학원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학자적인 소양(素養)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자에게 이런 글을 쓰게 함으로 선생에 대한 존경을 겸손히 배우라고 주신 기회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선생님들께 심심(深心)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먼저 이 글이 나오기까지 항상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논문을 지도해주신 황성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이 논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학문적 열정과 정도(正道)를 가르쳐 주신 정일웅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자상하고 친절하게 글을 쓰는 것을 지도해 주신 류응렬 교수님께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항상 새로운 과제와 의미로 우리를 새롭게 일깨워주셨던 대학원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박사논문 과정의 바쁜 중에도 자료를 구해주시고,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도와주신 안성모 목사님께 뜨거운 감사를 전합니다. 목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 주신 교무과 강신구계장님과 이연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넓은 아량으로 저의 신학공부를 이해해 주셨던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눈물어린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황희숙과 자녀들인 원·하민에게, 또 변함없이 든든한 후원자들이 되어주신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논문은 기도해 주신 분들의 은혜의 덕으로 나온 줄 압니다.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15일 구 복조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목적과 방법.....	4
II.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	6
1. 문화의 정의.....	6
(1) 서론적 이해.....	6
(2) 문화의 특성.....	8
2. 현대 대중문화의 정의.....	9
3. 현대 대중문화의 현실과 문제점.....	11
(1) 현대 대중문화의 현실.....	11
(2) 현대 대중문화의 특성.....	14
1) 외래성.....	14
2) 종속성.....	15
3) 지나친 상업성에 근거한 문화 수요의 팽창.....	16
4) 향락성.....	17
5) 오락성.....	18
(3) 현대 대중문화와 멀티미디어의 연관성.....	19
III. 개혁주의 문화관에서 본 대중문화.....	21
1. 기독교 문화관의 정의.....	21
2.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23
3. 개혁주의 대중문화 이해.....	24
(1) 부정적 대중문화관의 한계.....	24
(2)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들.....	26
4. 개혁주의 문화관.....	29
(1) 창조와 문화 명령.....	31

(2) 타락과 문화의 부패.....	34
(3) 구속과 문화의 회복.....	36
(4) 문화 명령과 지상명령.....	38
(5) 하나님 나라와 문화.....	39
V. 대중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목회적용.....	42
1. 개혁주의 목회관의 정의.....	42
2. 대중문화를 적용한 목회 사례.....	44
(1) 외국의 사례.....	45
1) 새들백교회.....	45
2) 윌로우크릭 교회.....	46
3) 산호세 벤엘 교회.....	47
(2) 우리나라의 사례.....	49
1) 창천감리교회.....	49
2) 신사동 교회.....	51
3) 사랑의 교회.....	52
3. 개혁주의 목회의 적용.....	53
(1) 대중문화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	55
(2) 교회학교의 성경적 세계관 교육실시.....	57
(3) 예배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성례전의 강화.....	59
(4) 설교 및 성경공부에의 적용.....	62
(5) 찬양사역에서의 적용.....	65
(6) 대중문화에 대한 교회와 가정의 교육의 연계성.....	67
4. 개혁주의 목회의 적용한계.....	68
(1) 예배와 설교 적용에 있어서 한계.....	69
(2) 멀티미디어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	70
(3) 열린 예배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한계.....	71
VI. 결론.....	73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는 대중문화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대중문화에 대해 방어적이고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며, 나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政體性)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히 목회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기독교문화관 정립(正立)의 부재(不在)로 인하여 성도들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기독교문화관 정립(定立)과 대중문화에 대한 목회적용의 실재를 연구하는 논문이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에 대한 정의와 특성을 논하였다. 대중문화는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대중매체에 의해 확산되는 문화임을 언급하고, 대중문화의 현실과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특성인 외래성, 종속성, 지나친 상업성과 향락성과 오락성을 언급하면서 대중문화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피해를 지적하였다. 더불어 멀티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대중문화가 상업주의적 바탕을 뒀으므로 야기되는 피해들을 지적했다.

이런 대중문화의 현실과 문제들을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았다. 먼저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대립, 수용, 지배, 긴장, 변혁으로 정리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유형론을 통해 개혁주의 문화관의 입장이 변혁적 입장임을 도출하였다. 기독교는 대중문화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변혁적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개혁주의

문화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통해 문화를 변혁하여 회복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중문화를 변혁하는 개혁주의 문화관을 가진 목회자는 대중문화를 목회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독교적인 세계관 교육을 실시하되,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시해야 한다. 셋째, 예배에 있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성례전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설교와 성경공부의 개발이 요청된다. 넷째, 찬양 사역에 있어서 음악 스타일의 채택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와 복음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가장 잘 표현되고 이해 할 수 있는 형식의 찬양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수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의 교육 연계(連繫)성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중문화를 목회 현장에 적용하면서 한계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의 친밀성과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며, 멀티미디어가 내포하는 위험성과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사용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문화에 대한 실천신학의 바른 관점을 갖고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일상(日常)화 되어 버린 대중문화를 무조건 배격하거나, 수용할 것이 아니라 문화 변혁적 입장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과 설교, 성경 공부와 제자훈련을 통하여 바른 기독교인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과 대중문화를 매개하는 멀티미디어들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직시(直視)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문화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I. 서론

1. 문제제기

오늘날 우리는 자연에 의해 지배되는 시대를 지나 사람이 만든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 의하여 우리의 생활 방식, 사고방식, 행동 방식, 가치관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문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문화는 한 사람이 그 전체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두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지고 있다.¹⁾ 현대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그 가운데 문화는 사회의 변화와 그 축을 같이 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문화 상황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대중문화(mass culture)이다. 문화의 세기라 일컫는 21세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성격은 대중문화이며, 이러한 형태의 문화는 다음 세기에 더욱더 심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²⁾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온 나라가 TV앞에 앉아 열광하는 모습이나, 국민의 거의 반수가 같은 시간에 같은 인기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즐긴다. 엄청난 관객들이 같은 영화를 보면서 정서를 공유한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에서 같은 정보를 나누고 서로 대화하는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대중문화의 요소들 즉 TV, 영화, 비디오, 인터넷, 각종 디지털 기술 등이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절감한다. 이제는 대중문화를 떠나서는 일상의 어느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대중문화 시대의 한복판

1)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p.6.

2) 이정석, “대중문화시대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엮음,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p.28.

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현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현대 대중문화는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오늘날 대중문화의 문제 중의 하나는 현대인의 쾌락추구 행위를 무분별하게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재미’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의 기능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문화 영역을 가리지 않고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규범화되고 그것이 ‘이윤추구’라는 ‘상업성’에 의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겠다. 한마디로 현대 대중문화는 쾌락주의와 상업주의라는 그늘을 드리울 뿐 아니라 대중문화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³⁾ 심지어 대중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속류 신비주의가 과학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류 신비주의가 마치 새 시대의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주는 것인 양 오해하고 있다.⁴⁾ 특히 그리스도인들과 한국 교회가 겪는 대중문화의 도전은 향락주의적인 문화로 인한 천박한 환경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과학 기술 문화로부터 오는 비인간화와 인간소의 문제이다. 그리고 동성애 문화, 엽기 문화 같은 것들이 대중문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위협한다. 한마디로 대중문화의 오염도는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대중문화의 현실 속에서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작 이를 의식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내부를 새롭게 꾸미면서 강단 뒤 벽에 붙박이로 거대한 TV 스크린이나 프로젝트와 스크린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며,

3)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2), p.7.

4) 속류 신비주의는 주로 환생, 귀신, UFO, 무속개념 속에 담겨져 대중들에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cf. 박양식, “영매문화와 그리스도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엮음,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p.159.

예배 중에 찬송가 보다 복음성가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⁵⁾을 선호함으로 예배가 가져올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급격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교회내의 문화적 변화로 인한 혼란을 겪는 부분은 찬양과 예배부분이다. 요즘 교회마다 유년 주일학교는 물론 중·고등부에서도 찬송가를 잘 알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예배의 경우 복음성가나 CCM 일색이다.⁶⁾ 심지어 청소년과 장년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보니 교회 안에서도 세대 간의 괴리감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해 가는 대중문화의 속도와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교회의 자세이다. 많은 경우 이런 문화적 격변을 성경의 원리나 신학에 입각하여 따져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성장 둔화와 담임 목회 세습 같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것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대중문화로부터의 도전이다. 향락적이며 퇴폐적인 대중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문화충돌, 문화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순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의 무차별적인 공격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역시 대중문화의 도전 앞에 거의 속수무책이다. 이런 현실을 살펴 볼 때 대중문화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시각을

5)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음악 양식에 기독교적 메시지를 결합한 음악을 뜻하는 말로, 일반 대중음악 스타일 형식의 오락성이 강한 교회음악을 말한다. CCM이 비슷한 개념이 복음성가와 구분되는 점은 복음성가가 매우 제한된 대중음악 양식만을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CCM은 팝, 록, 댄스, 랩 등 대중음악의 전 장르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cf. 강인중, “교회와 대중음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엮음,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p.222.

6)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2.

갖도록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대중문화의 변혁의 주체로서 교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대중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문화관을 제시한다. 특히 현대 대중문화의 현상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사상적 기초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대중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안목을 길러주고자 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오는 대중문화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이며, 대중문화 수용을 위한 목회적용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문화의 보편적 이해와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문화가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독특한 양식이라는 점과 문화는 삶의 모든 면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중문화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현대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현실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에서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현재까지 이르렀는가를 살펴보고,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한 대중문화의 도전이 무엇인지 대중문화의 사상적 기초와 대중문화의 이념적 흐름을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둘째는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혁주의 문화관을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고찰하면서 개혁주의 문화관을 소개한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지만

동시에 문화관의 기본 틀을 제시하는 세계관적인 패러다임이다. 개혁주의 문화관은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으로 정리되는 성경의 기본 진리를 토대로, 문화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개혁주의 문화관은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문화관에 입각하여 대중문화를 목회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목회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혁주의 목회관점에서 평가하고 적용가능성을 논하고자 한다. 동시에 목회적용의 한계를 실천신학적인 차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II.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

1. 문화의 정의

(1) 서론적 이해

문화라는 말은 처음에 인류학에서부터 사용되어졌으나, 지금은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로 문화에 대한 수많은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라는 말은 동양에서는 ‘글을 깨치게 되다’는 한자어 ‘文化’에서 온 말인데, 인간 문명이 발달되어 생활이 편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어의 ‘문화’를 의미하는 ‘culture’란 단어는 라틴어의 ‘colere’에서 나온 말로서, 그 뜻은 땅을 갈거나 ‘경작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본다면 동양은 문화를 정신적 의미로, 서양은 물질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⁷⁾

또 문화는 어떤 세계관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질과 형태가 결정된다. 왜냐하면 세계관은 문화의 뿌리이며, 문화는 세계관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문화를 이야기하면 유물론적 문화관을 이야기 할 것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문화를 논하면 기독교 문화관을 말할 것이다. 유명한 공산주의자인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에 따르면, 문화는 “한 떼의 원숭이들이 막대기를 움켜쥐었을 때”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에 의하여 인간으로 진화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엥겔스(Fredrick Engels)는 “인간은 자신의 양손을 사용하면서도부터 문화를 창조했다”고 했다.⁸⁾ 다분히 진화론적이고 유물론적으로 문화를 본 것이다. 이와

7) 성인경,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서울: 낮은 울타리, 1998), p.41.

8) Francis Ligel Lee,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최광석 역 「문화의 성장과정」

반대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적 문화의 개념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다. 칼빈주의 신학자 반틸은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이 관리하고 개발하는 일체의 일”⁹⁾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처럼 문화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정의는 달라진다.

문화는 인간이 출생 때부터 지니고 나온 요소 외에 사회생활을 통해 획득하는 모든 것이 문화에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인간의 지식과 신앙, 예술, 법률, 관습, 도덕, 유행 등 사회의 모든 기능과 현상들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복합물이 바로 문화이다.¹⁰⁾ 이렇게 보면 문화에 대한 수많은 개념 논의가 생겨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화의 정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현재 문화학자들 사이에도 모두가 동의하는 문화 개념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미 50년 전에 어떤 학자는 175가지나 되는 문화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이 주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보여 준바 있다. 하지만 문화 개념에 관한 가장 방대한 연구였던 그 논문조차도 긴 목록에 또 다른 정의를 더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¹¹⁾ 심지어 어떤 사람이 헤아려 보니 문화에 대한 정의가 16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고 한다. 각 시대마다, 사람마다 한 마디씩 내뱉은 문화에 대한 개념을 일일이 열거한다면 지면이 부족할 정도이다. 영국의 문화 연구가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문화는 영어에서 가장 복잡한 두세 가지 단어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¹²⁾ 이런 현상은 문화라는 개념이 뚜렷한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 문화자체가 다양하고 복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1980), p.12.

9) H. R. 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성암사, 1977), p.32.

10) 원용일, *문화의 유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p.20.

11)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58-59.

12) Raymond Williams, *Keywords: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London: Fontana,1976), p.87.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59. 재인용

잡하기 때문이며, 문화가 가진 다면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¹³⁾

그런데 문화의 개념들이 발전되어 영역의 범위에 있어서는 정신적이고 세련된 성취만이 아니라 의식주와 같은 일상적 삶의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는 인간적 노력이 낳은 유형적 산물뿐 아니라 무형적인 제도, 스타일, 과정과 사상, 비전까지도 포함한다. 그것은 과거의 산물일 뿐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문화는 인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되었다.¹⁴⁾ 쉽게 말해 문화는 역사적 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평가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에도 들어 있다. 그야말로 문화는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2) 문화의 특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는 연구방식이나 관점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다루어져 왔지만 문화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게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의 속성은 어떤 문화이론을 취하든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대중문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신국원 교수는 그의 책 *신국원의 문화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다. ¹⁵⁾ 첫째, 문화는 다양하다. 둘째, 문화는 경험의 축적과 전승이다. 셋째, 문화는 사회성과 역사성을 지닌다. 그리고 넷째, 문화는 역동적이다. 다섯째, 문화의 뿌리는 세계관이다. 여섯째, 문화의 초석은 종교이다. 일곱째, 문화는 영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초월

13) 원용일, op. cit., p.20.

14)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64.

15) Ibid., pp.66-84.

성이 있다. 문화는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신적인 세계에까지 눈길이 미치는 초월적 조망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문화의 속성을 고려해 볼 때 문화는 자연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행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방식과 관습, 제도를 만들어 내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반털에 따르면 문화란 문명국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여 목적에 따라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활동이다.¹⁶⁾ 로버트 E. 웨버는 문화란 하나님의 피조 세계 내에서의 인간 활동의 결과이며, 사람은 피조계를 개발하고, 자기 헌신의 반영인 문화를 창조한다고 말했다.¹⁷⁾

2. 현대 대중문화의 정의

대중문화는 문화 생산과 소비가 일부 엘리트가 아니라 ‘대중’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중문화가 ‘매스 컬처’(Mass culture)의 번역으로 본다면, 이것은 유럽 사회에서 교육 받지 못한 중하류 계층 사람들을 지칭하는 ‘마세’(masse)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별력이 없고 비이성적인 군중들의 문화로 인식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논의된 70년대 중반까지는 대중문화는 바로 이런 개념만을 의미했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파퐁러 컬처’(Popular culture)의 번역이라고 본다면 이 표현은 긍정적이며, 과거부터 이어오던 귀족 문화의 반대 개념을 가리킨다는 단순한 의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구 봉건주의 체제하에서나 근대화

16) Ibid., p.85.

17) Robert E. Webber, *The Secular Saint :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역, 「기독교문화관」 (서울: 엠마오, 1984), p.14.

이전 우리나라의 귀족문화(양반문화)에 대비되는 향민문화(서민문화)의 획일적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점에서 겐즈(H. Gans)와 같은 학자는 매스 컬처(Mass culture) 보다는 파퓰러 컬처(Popular culture)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최근에 대중문화는 매스 매디에이티드 컬처(Mass-mediated Culture)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털(M. Real)이 고안한 개념으로서 현대 대중문화의 특징을 매스컴의 문화로서 고급문화와 시민들의 전통적인 서민 문화 등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확산될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회구조나 문화산업의 질서가 문화의 창조과정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¹⁹⁾

이런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상반된 입장이라기보다는 대중문화의 두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²⁰⁾ 먼저 대중문화에 대한 긍정적 견해인데, 맹용길 교수는 대중문화는 대중의 학습된 삶의 양식이며, 대중문화는 대중의, 대중에 의한, 대중을 위한 문화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대중”은 누구인가? 그는 대중을 대다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합체로서 사회적 지위, 계급, 학력, 재산 등의 사회적 장벽을 초월해서 구성되는 사람들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한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근거로 대중문화의 시대가 도래 했음을 제시한다. 특히 대중문화는 세계화되어가고, 민주주의와 더불어 대중문화가 평등화, 민주화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대중문화는 정보와 연결되어 있음으로 정보시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와 결합하여 기계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대중문화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었음을 강조한다.

18) 원용일, op. cit., p.21.

19)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14.

20) 이정석, op. cit., pp.29-31.

그런가 하면 대중문화를 정죄하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손봉호 교수는 대중문화를 대중이 만들어내고 대중이 즐기는 문화라고 정의할 때 “대중”을 대부분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진 인간군”을 가리킨다. 이 거대한 인간 집단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량 생산과 대중매체에 의하여 생겨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소외된 인간군’이며, 따라서 대중문화는 ‘소외된 문화’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비판하는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한다면, 첫째로 문화의 대중화는 공동체와 자아의 상실을 유발시킨다. 둘째로 현대문화가 의존하고 있는 테크놀러지의 문제로서 기술문화는 우리의 새로운 환경과 지배체제가 되어 우리의 자연환경과 인간성과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 테크놀러지는 인간이 기계를 섬기고 맹종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대중문화의 세속성이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한다.²¹⁾

어쨌든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 세기에 더욱더 심화되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의 세기라 부르는 21세기 문화시대는 이런 논의의 중심에 이미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있다.

3. 현대 대중문화의 현실과 문제점

(1) 현대 대중문화의 현실

한국에서의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대중의 출현 이후의 문화, 산업 사회에 들어와서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말하자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대량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졌을 때 그리고 문화가 이윤추구를 위해서 이와 같은 생

21) Ibid., pp.31-38.

산과 소비의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양상이다. 특히 매스 미디어에 의해 대량으로 복제, 양산되는 문화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²²⁾ 다시 말해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근대화와 산업화, 자본주의화라는 생산양식의 변화과정 속에서 인과적으로 따라오는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보는 것이다.²³⁾

우리나라의 대중문화의 발달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한국 대중문화의 생성 시점은 1945년 해방에서부터 6.25동란 휴전인 1953년까지 약 10년간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대략 10년 단위로 산업화, 민주화, 자유화 과정을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사도 경제, 정치, 문화의 순서로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²⁴⁾ 정치, 경제, 문화는 항상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각 시대마다 국민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정치 상황의 변화로 삶의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부추기게 되었다. 특히 막강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첨단과학의 발달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문화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문화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대중문화에 젖어 살고 있다. 현대 대중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깊은 산골의 움막에도 텔레비전이 정보와 오락의 창문 역할을 한다. 눈을 뜨자마자 리모컨을 찾아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이 허다하다.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화려하고 오락적인 영화를 쉽게 접한다. 많은 이들이 하루 일과를 인터넷을 여는 것으로 시작한다. 공부에 쫓기는 아이들도 휴대용 음향장치 mp3를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달고 산다. 이렇듯 사람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중문화 속에 묻혀 살아간다. 한마디로 대중문화는 우리의 일상이다.

22) 강현두, *대중문화의 이론* (서울: 민음사, 1984), pp.14-15.

23) 박종균, op. cit., p.11.

24)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22.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그토록 싫어하고 무서워하던 귀신이나 악마가 하나의 문화 트렌드의 상징물이 되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전생과 환생이 다뤄지고 귀신 및 그 밖의 영적 존재들이 다뤄지면서 영적 문제는 종교의 영역을 벗어나 문화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듯 기존의 회피 대상이 선호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대중문화라는 키워드로 파악된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더욱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대중문화는 인간을 초월해 있어야 할 하나님마저 문화 상품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의 대중문화의 흐름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를 예고한다. 대중문화의 영역은 새로운 기술과 접목되면서 점점 더 확장 되고 있다.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팩스, 위성, 텔레비전, 복사기, 휴대폰 등이 연결되어 상호 작용하는 유비쿼터스²⁵⁾ 체제가 상용화되면 대중문화의 모습은 어떻게 확장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문명사적 관점에서든 현 시점은 매우 중요한 문명 전환의 시기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의 현실을 인정하고, 대중문화의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중문화의 현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런 현실을 피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또 대중문화를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이용하려고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대중문화가 쉽게 그리스도인들의 노리개로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중문화에 대해 좀 더 창조적인 자세로 다가가 자신의 역할을 분

25)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로 '편재하다(보편적으로 존재하다)'라는 의미이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금처럼 책상 위 PC의 네트워크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카 네비게이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비 PC 기기가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저가의 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명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대중문화의 특성들을 살펴 보면서 대중문화를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현대 대중문화의 특성

1) 외래성

한국에 있어서 대중문화 현상은 미국과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문화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군정은 불과 3년미만(1945년 9월-1948년 8월 15일)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우리 문화 전반에 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즉, 문화면에서 이른바 ‘양키 문화’의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문화구조적인 표류의 한 시발을 만들어 주었다.”²⁶⁾ 그리고 6·25전쟁 이후 미국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은 일제에 의해 부정되고 왜곡된 우리 문화가 역사에서 정당한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대중문화 이식(移植)은 1920년대 이후 미국에 있어서 대량소비의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상업주의적 자본주의 문화로서 1960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잡지, 신문 등의 매체를 타고 전파되었다. 1947년부터 주한 미군을 위한 AFKN-TV 방송은 그들의 시청 대상인 미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안방에 까지 미국 대중문화를 여과 없이 전달시켰다. 특히 1983년 10월4일 AFKN-TV SATNET라 불리는 새로운 위성방송을 허가함에 따라 AFKN은 미국 본토와 24시간 언제나 위성을 통하여 방송이 가능해 졌고 1중에 약 40%의 프로그램을 수신 방송하고 있다.²⁷⁾

1990년 이후 케이블-TV의 등장으로 안방에서도 STAR-TV, CNN등의

26)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서울: 한길사, 1980), p.33.

27) 강종근, “AFKN-TV의 문화적 영향,” *방송연구*, (1985년 봄호), p.234.

방송을 미국과 같은 시간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거기에다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공영채널은 물론이고 많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문화를 접하고 있다. 특히 지배층의 무분별한 서구 지향적 태도에 의해서 미국적 오락 문화가 근대적인 문화로 소개되고, 또 대중 매체를 통해 전체 국민들의 주체적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대중문화는 외래적 모방문화가 되었다. 쉽게 말해 한국 문화의 배경에는 미국 문화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2) 종속성

한국 대중문화의 종속성은 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종속이다. 1999년에만 수입한 외국 영화가 297편이다. 그 중에 미국 영화가 200편이다.²⁸⁾ 최근에는 이 보다 더 많은 영화나 상업매체들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국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문화 비평가 닐 포스트만(N. Postman)은 자신의 책 *죽도록 즐기기 (Amusing ourselves to death :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참 미디어 역)에서 오늘날 미국 문화 전체가 라스베가스화 와 헐리우드의 쇼 비즈니스를 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쇼 비즈니스를 전형으로 삼는 문화는 재미와 오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한다. 무엇이건 재미있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의 지배로 정치, 경제,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종교를 통해서도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만은 이런 상황을 위기로 간주했다. 결국 이 시대는 “죽도록 오락을 즐기는” 문화 시대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거의 무한정한 오락 추구 욕구를 살피는 데는 실패”한 결과 오늘날의 삶이 위

28) “1999년도 한국영화 산업현황.” 한국 영화진흥 위원회편, 「2000년도 한국 영화연감」 영화 진흥위원회 영화 아카데미 정책연구실. 2000,8 <http://kofic.or.kr>

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²⁹⁾

포스트만의 미국 문화 분석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한국의 문화 현실은 미국 문화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한국 문화의 현실은 더 심각한지 모른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오락성을 본질로 삼는 문화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문화가 연예, 여가, 유행, 대중 매체, 대중 예술 등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³⁰⁾

3) 지나친 상업성에 근거한 문화 수요의 팽창

90년대에 도래한 문화 시대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지나친 상업성에 근거를 둔 문화 수요의 팽창이다.³¹⁾ 한마디로 문화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붓물이 터지듯 쏟아진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영화의 르네상스를 맞았다고 즐거워하는 영화계와 함께 음반의 제작과 수입 그리고 각종 공연도 활발해졌다. 스포츠, 여행, 레저 문화도 여기 한 몫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문화 수요와 공급이 급증하고 그로 인해 문화계가 활성화되고 문화 산업이 팽창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가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문화의 홍수 속에 수준이 향상되기는커녕 문화적 환경만 혼탁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화 붐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저급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고무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문화 수요의 팽창의 여파는 좁은 의미의 문화생활을 훨씬 넘는 파

29)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27-29.

30) 철학 전문 잡지인 계간 “철학과 현실” 1997년 봄호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 윤리적 책임”을 통해 대중문화의 윤리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31)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22.

급 효과를 거두었다. 단순히 경제적, 시간적 여가를 즐기는 오락을 넘어서 하나의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또 사회적 관습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생활이 대개는 비생산적이고 심지어는 퇴폐적인 성향마저 짙어, 도덕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인생관도 바뀌고 직업의식이나 근로정신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문화 시대의 변화와 혼란은 전(前) 시대의 경제 성장 추진 과정과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유산과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특히 지금의 문화 수요의 팽창은 경제 성장과 연관되고, 급진 문화 운동의 뿌리는 민주화 운동에 생태적 기원을 두고 있다.

4) 향락성.

문화 수요의 팽창이 가져오는 또 다른 피해는 문화가 향락적이고 저질저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현실은 이런 우려대로, 날로 늘어나는 저질 문화 산업에 의한 문화 환경의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환경오염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문화오염이다. 삶이 비교적 풍족해진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향락 산업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향락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³²⁾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보화 추세를 타고 인터넷과 전자 통신의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는 거의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영화나 잡지 그리고 스포츠 신문과 같은 오락물뿐 아니라 일간 신문과 TV등 안방 매체들 까지도 끔찍한 폭력 장면이나 낮 뜨거운 성적 장면들을 문화나 광고의 이름으로 무차별하게 배포하고 있다. 대중문화 감시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들의 모니터 보고서와 일간 신문 및 특히 스포츠 신문, 영화, 비디오, 음반 등 거의 모든 문화 상품에 대한 감시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볼 수 있다.³³⁾

32) 손봉호, “사치 풍조와 향락 문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7년3월호, p.2.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문화 수요의 팽창이 가져온 유익을 간과할 수 없지만 어두운 면들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염된 문화는 오염된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피하기가 어렵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대중문화는 삶을 물질 만능주의나 쾌락 지상주의와 같은 저급한 가치 추구를 지향하고, 성 범죄나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대중문화는 청소년의 심신을 황폐화시켜 국가의 건전한 미래를 위협한다.³⁴⁾

5) 오락성

문화의 세기의 주역은 오락적 대중문화이다. 오늘의 대중문화는 인간이 “거의 무한정한 오락 추구 욕구”를 갖고 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 삶의 이상을 놀이와 재미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 사회는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는 가장 각광받는 인물이 되었다. 오늘날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투사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지는 과거와 많이 다르다. 소위 ‘튀는’ 사람들이 사회 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다.³⁵⁾ 우리 사회의 90년대를 특징짓는 ‘문화 시대’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여유라는 물질적 조건을 전제로 벌어진 단순한 즐거움의 축제가 아니었다. 이 ‘문화 시대’와 함께 전례 없이 특이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갈등은 이미 여러 가지 모습을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 가운데 특이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은연중 포스터모더니즘³⁶⁾이 대 유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스터모더니즘은 후기 자본주의의 잔상이며, 이 잔상은 신기루인 동시에 병리학적 객관적 현상이다. 포스

33)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 청소년유해 환경 감시활동 보고서: 공공근로 사회정의 자원활동 매뉴얼」 (서울: 기윤실, 1998),

34)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25.

35) Ibid., p.30.

36) 포스터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와 "모더니즘(modern)"이라는 말이 서로 결합되어 나타난 말이다.

트모더니즘은 탈 근대주의 또는 탈 현대주의로 표현한다. 이것은 모더니티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면서 생긴 사상이나 문화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⁷⁾ 이 이론은 진리의 절대성을 거부하고 진리의 우연성과 개연성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주의 이론을 주장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66%의 미국인들이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다. 성인들의 경우보다 청년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 18세부터 25세에 이르는 젊은이들 중에서 72%는 절대적인 것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³⁸⁾

대중문화 학자인 제임슨에 따르면 포스터모더니즘은 문화적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본적인 특징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구분하는 이전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³⁹⁾ 또 이것은 문화적 갈등이 제기될 때 마다 대중문화의 영역을 사회 규범의 규제와 통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흔히 동원된다. 이들은 누가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지를 되묻는다. 그리고 이들은 비판가들이 보수적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라고 매도한다. 심지어는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대중 매체들도 이런 이론을 내세워 국가와 사회적 검열을 배격하거나 시민적 항의 운동을 불식시키려 한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가 근래까지 보수적이었던 탓인지 일단 수용된 포스터모던 사유는 극단화되는 경향을 보인다.⁴⁰⁾

(3) 현대 대중문화와 멀티미디어의 연관성

37) 박남훈, *광고와 매스미디어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 (서울: 세종출판사, 1999), pp.22-25.

38) Gene Edward Veith Jr, *Postmodern Times*, 오수미 역,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p.14.

39) 대중문화는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정전(正典)에 반대하는 탈 정전의 경향이다.

40)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44-45.

미디어(Media)란 매개 매개체(媒介體), 양자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는 수단(手段)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간접적·일방적으로 많은 사회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신문·TV·라디오·영화·잡지·컴퓨터·인터넷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합하여 표현한 말이다. 대중문화는 멀티미디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대중이 향유하는 매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는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핵심 도구이다. 대중문화와 멀티미디어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중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귀와 눈으로 문화를 접하게 되고 소비하게 된다. 멀티미디어는 문화생산자에 의해서 조종되며, 문화소비자로서의 대중은 멀티미디어에 의해 지배 받게 되는 체계가 형성된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멀티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무형(無形)문화 그리고 유형(有形)문화를 극대화한다. 대중문화의 형성은 대중에게 있기 보다는 멀티미디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대중문화는 멀티미디어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상업주의적 바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제체제하의 멀티미디어는 이윤성을 언제나 고려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대중문화는 저급성·편의성·감각적·쾌락적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⁴¹⁾ 이런 대중문화의 현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 바른 지침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 장에서는 개혁주의 문화관에서 본 대중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41) 박종균, op. cit., p.59.

III. 개혁주의 문화관에서 본 대중문화

1. 기독교 문화관의 정의

문화는 인간의 본성에 깃들어 있는 종교성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인간 삶 전체의 활동이다. 이와 동일한 사실이, 문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경에 따르면 문화는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면서 스스로 발전시켜 온 자율적 기획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대해 품으신 계획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문화 창조의 임무를 맡기셨다.⁴²⁾ 그러므로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방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따라서 문화의 방향은 문화의 사역자인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문화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다. 문화는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 인간은 문화의 주체자로서 책임이 크다. 창세기 4장 이후에서 보듯이 문화는 본래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한 채 자율적이고 인본적인 방향으로 나간다. 문화는 인간의 영성에 의해 지배되고 그 원리를 모든 부분에서 구현한다.⁴⁴⁾

기독교 문화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는 원리에서 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 점은 구약에서도 예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창출해

42)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86.

43)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p.13.

44)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86.

낸 문화가 대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 이후 인간의 문화 활동은 그 종교적 뿌리에 따라 대조적인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한다. 결국 문화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긴장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의 세상에 타락한 문화와 구속된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대할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리를 함축하고 있다.⁴⁵⁾ 첫째로, 문화는 영적으로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와 문화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반틸은 “종교와 문화는 분리할 수 없다. 모든 문화는 종교에 의하여 활기를 띤다. 기도에만 제한된 종교는 기형적이며 역사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었다.”⁴⁶⁾라고 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긴장은 문화 그 자체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죄와 타락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세속 문화에 대해 느끼는 긴장감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긴장감 때문에 문화 자체를 기피할 수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반문화적인 태도와 복음과 문화를 분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신앙적 원리에 부합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한다. 기독교 문화는 물질이나 권력 같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문화와 달라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을 변혁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기독교 문화 창조를 위해 애쓰는 것 마땅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주변의 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적 진공상태에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문화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 문화가 변혁

45) Ibid., p.87.

46) H. R. Van Til, op. cit., pp.54-55.

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⁴⁷⁾ 기독교 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 문화의 실상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2.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는 기독교와 문화의 긴장을 ‘영속적인 문제’라고 불렀다. 그는 기독교와 문화의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대립, 수용, 지배, 긴장, 변혁으로 정리한 그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관을 5개의 유형으로 분석하였다.⁴⁸⁾ 니버의 유형론이 기독교 문화이론을 세우는데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왜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니버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았고, 볼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바른 입장은 변혁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버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기본적 분리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어거스틴에서 칼빈과 카이퍼로 이어지는 변혁주의 입장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⁴⁹⁾ 니버는 역사적 실례를 들어 개혁주의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변혁론자를 거론하면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언급하지 않음은 치명적이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 말엽 화란의 종교개혁운동의 지도자로서 모든 사상과 모든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위대한 사명으로 교회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다. 이런 니버의 문화 유형론은 나름대로 공헌한 바가 많이 있지만 개혁주의의 본질을 보여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니버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변혁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47)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87.

48)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pp.56-60.

49)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25.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에 앞서서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들을 소개하면서 부정적 대중문화의 한계와 대중문화에 대한 올바른 기독교적 관점이 무엇인가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개혁주의 대중문화 이해

(1) 부정적 대중문화관의 한계

오늘날 대중문화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환경오염과 흡사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일반적인 자세는 비판도 옹호도 아닌 무관심이다. 대중문화의 문제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자신은 영화나 대중가요 같은 대중 예술을 접하는 정도가 적거나 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다고 자처하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간다. 물론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대중문화가 사회 전반의 주류가 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상식적 비판을 뛰어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대중문화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⁵⁰⁾ 대중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그냥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대중문화에 오락적이며 퇴폐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직관적 비판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중문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것에 대한 진지한 이해의 부족과 비판을 제기하는 방식에 서툴다. 예를 들어 소위 ‘열린 예배’를 둘러싸고 많은 교회들이 겪는 갈등을 보면, 대중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함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열

50)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4), p.29.

린 예배 형식의 핵심인 찬양을 비롯해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대중문화와 밀착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대중문화를 진지하게 논의할 기초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⁵¹⁾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서조차 설득력 있는 방향제시나 교육을 하지 못해 자주 반발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런 태도에 대한 반발로 인해 대중문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가볍게 즐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남들은 즐겁게 노는데 심술궂은 훼방꾼 노릇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늘 구태의연한 도덕 타령만 해야 하느냐고 불평하거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야만인이라고 나무라는 경우도 있다.⁵²⁾

이제 교회는 대중문화의 중요성에 눈을 떠야만 한다. 대중문화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현실에 아예 신경을 끄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중문화의 현실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부정 일변도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대를 사는 어느 누구도 대중문화에 무관심하거나 그 영향력에 무관하다고 방심해도 괜찮을 사람은 없다. 자신의 문제는 덮어 두고라도 자녀 교육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다.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의 결핍은 밖으로는 세속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역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속수무책이 되게 한다. 나아가 대중문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에 찬 태도는 교회 밖은 물론 교회 내의 다른 입장이나 세대와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바른 입장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51) Ibid., p.31.

52) Ibid., p.31.

(2)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들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대체로 세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방어적인 태도인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케네스 마이어스(Kenneth A. Myers)이다. 마이어스는 「대중문화는 기독교의 적인가 동지인가?」(*All God's children and blue suede shoe*, 나침반 역간)에서 대중문화가 퍼트리지는 정서와 세계관이 기독교의 신빙성을 잠식하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대중예술 한두 작품이 아니라 대중문화의 전반적인 성격이 문제라는 것이다.⁵³⁾ 이런 비판적 입장은 대개 도덕주의와 엄격주의 전통에 입각한 것으로 이런 시각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논의에서 쉽게 편을 갈라 버리는 왜곡된 논의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성경적 입장을 고급문화의 견해와 동일시하고 그 안목에서 사안을 바라봄으로 오늘날과 같이 일과 놀이의 중요성이 역전되어 버린 사회와 세대에게 당혹을 금치 못한다.

한국 교회의 이런 반응은 뉴에이지 문화의 유입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에 출발했다. 뉴에이지 문화의 반기독교성에 주목한 그리스도인들이 대중문화 속에 숨어 있는 뉴에이지 사상과 전략을 경고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논리가 대중문화 전체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런 태도는 대중문화의 타락을 집중 공격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문화로부터 교회를 방어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대중문화 시대에 현실과의 접점(接點)을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다.

둘째, 기회주의적 태도이다. 이것은 가톨릭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앤드류 그릴리이다. 그는 교회가 대중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 주목할 것은 그

53) Ibid., p.37.

가 대중문화의 신학을 개발하기 위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의 연구는 내용적으로는 ‘문화 연구’에 가깝다는 점이다. 그릴리의 대중문화 이론은 현대적인 주제를 다루지만 그 근본은 전통적인 가톨릭의 자연과 은총의 도식에 머물고 있다.⁵⁴⁾ 물론 관점이나 옹호하는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개신교도 가운데도 그릴리에 근접하는 이론가가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옹호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풀러 신학교의 교수인 로버트 존스톤(Robert K. Johnston)이다. 그는 그의 책 「영화와 영성」(*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역간)에서 영화가 종합 예술이며 대표적인 대중문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영화가 보통 사람들의 생각처럼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만은 아니라 나아가 현실을 이기고 고상하게 하며 종교적 소명을 받게 하는 도구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사실 이러한 대중문화에 대한 호의적이고 옹호론의 문제는 흔히 일반은총에 입각하여 대중문화의 순기능에만 주목하는 관점에 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관점은 대중문화의 근본적 세계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칫 무비판적으로 대중문화를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위험은 이미 복음성가에서 대중문화 형식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나 각종 미디어 기술의 효능에 대한 맹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교회의 이런 반응은 청년들이 교회 밖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잡기 위한 방편으로서 취하게 된 태도이다. 문화의 향유를 일시적으로 용인해 주고 언젠가 그 대중문화를 떨쳐내도록 이끌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겉으로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척 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해 목적 달성을 위한 이용거리로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대중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를 해소해 주지

54) Ibid., p.45.

55) Ibid., pp.46-47.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정복주의적 태도이다. 다른 문화의 공존을 용인하지 못하고 기독교문화를 주류 문화로 부각시켜 대중문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다른 문화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하고, 잘못된 기독교 문화의 우월감을 조장할 수 있다. 한국 교회에서 자주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런 태도인데, 예를 들어 2002년 월드컵 때에도 표면화되었다가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붉은 악마’라는 이름 사용을 금지시키자는 움직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태도들은 대중문화의 문제를 푸는데 바람직한 태도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현대 대중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문화와 기독교를 대립시키는 모든 이원론을 배격하고 대중문화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교리를 진리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태도는 기독교를 진리로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역할 지향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개혁주의적 입장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쾨틴 쉘츠(Quentin J. Schultze)와 윌리엄 로마노프스키(William D. Romanowski)이다.⁵⁶⁾ 로마노프스키는 대중문화를 분명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별하고 나아가 변혁(transformation)을 지향한다. 그의 출발점은 우선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 한다’는 생각이다. 세상은 비록 타락했으나 그 어떤 것도 구속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주

56) Ibid., p.49.

남께로 회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입장은 외면적 비판이나 피상적 종교성을 기준으로 문화를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하는 한 문화의 기초적 조건, 즉 문화의 종교적 기초와 이를 매개하는 세계관을 점검한다. 이 비판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의 토대가 되는 종교성을 비판하여 바로 잡음으로써 그 문화를 개혁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적 대중문화관은 기독교 세계관 즉,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요약되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대중문화를 해석하기를 원한다. 창조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구속을 통한 회복을 믿는 세계관에 기초해서 대중문화를 변혁해 나간다.

3. 개혁주의 문화관

우리는 짧게나마 역사에 나타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유형을 살펴보았다.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제(諸)입장들을 고찰해 보았다. 그러나 정작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좋은 문화는 좋은 세계관이 기초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세계관이 좋은 문화를 낳기 때문이다. 특히 좋은 세계관은 문화와 만물의 존재양식에 바른 설명과 대답을 준다.⁵⁷⁾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문화관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를 둔다. 기독교 세계관이란 간단히 말해서 신의 존재, 우주의 기원, 악의 문제, 구원의 길, 역사의 종말 등에 대한 절대적이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대답을 제시한다.⁵⁸⁾ 기독교 세계관은 문화를 창작할 때나 문화를 비평할 때 꼭 필

57) 성인경, op. cit., p.71.

58) Ibid., p.71.

요한 기독교적 패러다임(paradigm)인데, 특히 기독교적 패러다임은 문화 창조와 비평의 사상적 기초가 된다. 성경이 이 패러다임의 기초를 제공한다.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골자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정리된다. 성경의 중심 진리인 이 패러다임은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이것은 문화의 본래 목적과 실상이 어떠했으며, 죄와 타락이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속을 통한 만유의 회복은 문화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문화의 미래는 어떠할 지 말해 주기 때문이다.⁵⁹⁾

성경을 기초로 형성된 이 세계관을 개신교의 종교개혁에서 이름을 따서, ‘개혁주의적’ 세계관이라 부른다. 이 사상은 성경을 숙고하면서 세계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와 어거스틴(Augustine), 틴데일(Tyndale)과 칼빈(Calvin) 같은 사람들이 이 전통의 뛰어난 대표자들이다.⁶⁰⁾

이런 개혁주의 문화관 전통에서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aplan), 클라스 스킨더(Klass. Schilder), 헤르만 도예베르트(Dooyeweerd. Herman), 그리고 헨리 반틸(Hernry R. Van Til) 등이다.

개혁주의의 특징은 칼빈의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전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모든 것이 그 분께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이는 창조와 더불어 그것에서 비롯된 모든 일과 문화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다.⁶¹⁾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6)

59)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32.

60) Albert M. Wolters,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역, 「창조·타락·구속」(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p.12.

61)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132-133.

이 성경 구절은 개혁주의의 송영이라 불린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 만유는 그 지으신 목적과 선하신 섭리를 따라 완성을 향해 발전할 것이다. 비록 타락 이후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 온 세상은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될 것이다. 개혁주의는 이러한 신앙고백을 토대로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이해한다. 이로 인해 그 특유의 변혁적 문화관을 기독교 역사 속에 심어왔다.⁶²⁾

본 연구에서는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주요 골자인 창조, 타락, 구속을 문화와 관련지어 각 영역별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세계관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 정의한다면,⁶³⁾ 이 세계관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그 유형의 형태가 문화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세계관을 문화와 관련지어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1) 창조와 문화 명령

개혁주의는 창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문화의 기원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창세기는 존재의 기원뿐 아니라 문화의 시작에 관한 계시이기도 하다. 창세기1장과 2장에는 세계와 인간의 창조에 이어 ‘문화 명령’이 나온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그에게 문화 창조의 능력을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문화의 가능성이 출발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다.⁶⁴⁾ 창세기1:26-28은 인간의 창조와 ‘문화

62) Ibid., pp.133-134.

63) Albert M. Wolters, op. cit., p.13.

64) 이정석, op. cit., p.39.

명령'을 잘 보여주는 성경구절이라 할 수 있다.⁶⁵⁾

그런데 문화 명령은 몇 가지 필수적인 전제들을 가지고 있다.⁶⁶⁾ 첫째로, 문화 명령은 에덴동산에서 주어졌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된다. 둘째로, 문화 명령은 동료 인간과 정상적인 관계가 전제된다. 셋째로, 문화 명령은 자연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하였다. 넷째로, 문화 명령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올바른 관계를 전제한다. 한마디로 성경은 문화의 근원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린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의 창조와 함께 문화 발전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연이 처음 창조된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신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 내재된 가능성들이 개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완성으로 나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창조는 문화를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는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⁶⁷⁾

태초에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이 우주가 존재하도록 붙들고 계신다.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그의 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며 다스리시지만, 또한 이 일에 인간을 동역자(co-worker)로 부르셨다. 스킬더(K. Schilder)는 인간을 하나님의 일꾼(labourer of God)또는 동역자라고 불렀다.⁶⁸⁾ 이렇게 보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일꾼'으로 지음 받았다. 인간은 피조물 전체를 위탁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문화명령'을 부여 받았다. '문화 명령'은 결코 자연에 대한 인

65) 개역성경, 창1:26-28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66) 이정석, op. cit., pp.39-40.

67)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134.

68) K. Schilder, *Christ and Culture*(Winnipmier: Premier Printing Ltd,1977), pp.32, 37-41.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135. 재인용

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거나 훼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을 돌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엄두에 두어야만 바른 문화를 조성할 수 있고, 문화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 성경은 문화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 내고 발전시켜 온 자율적 기획의 산물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다. 성경이 말하는 문화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한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인간에게 ‘문화의 일꾼’으로서 임무를 부여하셨다.⁶⁹⁾ 문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다. 이를 놓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aplan)는 문화란 은혜로 주신 선물인 동시에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 했다. 인간은 그에게 주신 바 특이한 능력인 생각, 직관, 느낌, 상상력, 솜씨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연을 개발함으로써 그 소명에 응답한다. 문화는 인간적 의도가 담긴 자연의 변형 또는 조작 행위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온 모든 활동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는 결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타락 이후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 또 타락 이후 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 낸 고상한 처방전도 아니다. 문화는 그 기원에 있어서 타락보다 앞서며, 그 본질상 타락의 파괴적 영향을 능가한다.⁷⁰⁾

결국 인간의 창조는 무에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순수한 창조와 구분되는 모조(模造) 혹은 제조(製造)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문화의 창조자로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계속하는 창조의 도구로 사용한다.⁷¹⁾ 이런 의미에서 문화명령은 창조의 꽃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창조의 꽃에 벌레가 생기게 했다.

69)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136-137.

70) Ibid., p.137.

71) 이정석, op. cit., p.41.

그것이 곧 타락이다.

(2) 타락과 문화의 부패

우리는 앞에서 창조와 관련하여 문화를 생각해 보았다면, 여기에서는 타락이 창조 세계에 미친 영향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것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의 대재난을 의미하는 사건임을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다. 인류 전체뿐 아니라 인간 이외의 전 세계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과 경고를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그 실패에 연루되어 있다. 죄의 영향은 피조계 전체에 미친다. 피조된 사물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⁷²⁾

그러므로 문화 사명을 수행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문화에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를 타락의 ‘우주적 영향’이라고 부른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되었으며, 자연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삶의 여건이 힘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전체를 망치고 종말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문화를 성취하는 능력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단지 인간의 활동이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⁷³⁾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주적 법칙은 여전히 변함없다. 문화 명령 역시 타락 이후에도 유효하다. 이 사실은 홍수 이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창9:1-9)에서 알 수 있다. 이 명령은 이전 명령과 본질상 동일하다. 하나님은 세상은 타락했지만 많은 선한 것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문화는 세상 마지막

72) Albert M. Wolters, op. cit., pp.67-72.

73)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37.

날까지 이어질 것이다.⁷⁴⁾

하지만 타락의 결과로 생긴 첫 번째 변화는 문화가 자율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법아래서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대신, 그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다. 죄의 본질은 지각, 감각, 판단, 행위 모든 면에서 자율적이 되려 한다. 이것은 오늘날 문화 전반과 예술이 흔히 우상 숭배나 신성 모독적 쾌락과 연관되어 있고, 세속화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볼 때 본래 문화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인간의 심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세워 행동하는 결과이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행동이었다. 인간은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⁷⁵⁾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문화의 대리인인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 문화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떠나 인간의 안정 추구나 나아가 탐욕과 권력욕의 도구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영향은 ‘구조적’(structural)이라기보다는 ‘방향적’(directional)이며, ‘존재론적’(ontological)이기보다는 ‘윤리적’(ethical)이요 궁극적으로 ‘종교적’(religious)이다.⁷⁶⁾ 죄로 인해 우주의 근본 구조가 변하거나 존재론적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다. 범죄 후에도 우주는 그대로 존재하고, 인간은 여전히 인간이다. 변한 것은 인간의 마음의 방향이요 윤리적 자세이다. 인간의 궁극적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외의 그 무엇으로 바뀐 것이다.⁷⁷⁾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피조계 내에서 그

74) Ibid., p.138.

75) Herman Dooyeweerd,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 vol. I (Amsterdam: Uitgeverij H.J.Paris, 1953)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38. 재인용.

76) Albert M. Wolters, op. cit., pp.67-72.

인격의 중심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길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타락하자 그의 마음만 하나님과 원수 된 것이 아니라 만물도 죄악 속에 신음하며 본래의 목적을 이탈하게 되었다. 오늘날 문화의 타락상은 이런 뿌리를 두고 있다. 타락은 문화를 파괴하지 않지만 의도되었던 방향을 완전히 왜곡한다. 문화는 그렇게 인간의 반역한 마음에 의해 왜곡되고 오염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 대신 그분께 반역하고 인간도 파멸하게 되는 죽음과 어두움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⁷⁸⁾

(3) 구속과 문화의 회복

인류의 타락이 창조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구속 역시 모든 영역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우주적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순히 창조를 넘어선 어떤 것의 첨가가 아니라 손상되지 않은 창조계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곧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회복이 창조계의 어떤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⁷⁹⁾ 실제로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하는 기본적인 낱말들 모두가 본래의 선한 상태 또는 선한 상황으로의 회복을 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속(redemption), 화해(reconciliation), 새롭게 함(renewal), 거듭남(regeneration)등 이 모든 용어는 못쓰게 되거나 상실했던 어떤 좋은 것의 회복을 의미한다. ⁸⁰⁾

이와 같은 성경의 강조점을 인식한 신학자들은 구원을 ‘재창조’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세계를 폐기하시고 그리

77)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39.

78) Ibid., pp.139-140.

79) Albert M. Wolters, op. cit., p.79.

80) Ibid., pp.79-80.

스도 안에서 다른 새로운 것을 지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원래의 창조 세계를 계속 붙들고 계시다가 다시 건져 내셨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본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희생시킨 것이다.⁸¹⁾ 태초로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죄 값으로 주심으로 새 생명이 짝트게 된 것이다.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문화의 사역자인 인간이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이다.⁸²⁾

문화에 대한 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구속의 영향 또한 그렇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속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구속은 응급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본래의 목적을 회복한다는 의의가 있다. 구속은 인간을 회복함으로 문화의 회복도 원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신 목적은 소극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어 인간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⁸³⁾ 그러므로 죄의 해결은 진정한 문화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따라서 죄를 구속한 그리스도가 문화를 구속하고 참여하는 것이 문화 창조의 전환점이 된다.⁸⁴⁾ 결국 구속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구속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aplan)의 말대로 “삶의 바퀴를 바로잡는 일”이다. 자동차의 앞바퀴가 비틀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핸들을 바로 잡고 있어도 차가 똑바로 갈 수 없다. 구속도 이와 같이 비틀어진 우리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로잡는 것이다.⁸⁵⁾

81) Ibid., pp81-82.

82)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40.

83) Ibid., p.140.

84) 이정석, op. cit., p.40.

85)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141.

구속은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중생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화를 거쳐 영화(롬8:28-30)로 나아간다.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이나 신비하게도 인간편에서 순종을 통해 참여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포함된다. 이것이 구속받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가능케 하는 근거이며 동기이다. 여기서 신자들이 얻은 구속은 ‘원칙적’(in principle) 구속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원리적으로는 구속받았지만, 실천의 문제에서는 얼마나 그 원리대로 사느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⁸⁶⁾

(4) 문화 명령과 지상명령

창조, 타락, 구속의 진리가 분명 인간의 문화적 사명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보다 복음 전파가 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이를 문화 명령과 대치시키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은 문화 명령과 상치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과 문화는 분리 될 수 없다. 복음을 무시하는 문화를 갖춘 복음이나, 복음에 부합하는 고상하고 품격 있는 문화를 갖춘 복음이나가 문제될 따름이다.⁸⁷⁾

성경의 복음은 영혼만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속은 전인격이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이다. 구원의 비전은 전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변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에 주의 다스림이 회복될 것을 바라본다. 결국 복음 속에는 문화의 회복도 비전의 일부로 포함된다. 문화도 변혁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교는 단지 개개인의 심령의 변화에 그치지

86) Ibid., p.141.

87) Ibid., p.142.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에는 복음과 접속한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한 선교학자의 말처럼 복음은 결코 ‘문화의 손님’인 경우가 없다. 복음은 문화의 구속자요 변혁자로 임하지 혹은 심판자로 임한다.

이렇게 볼 때, 문화와 선교는 원칙적인 면에서 갈등 관계가 아님이 분명하다. 문화가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소명이었다면, 선교는 죄로 상실된 세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적 진리의 선포이다. 따라서 문화와 선교는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성경에 비추어 문화를 변혁하는 일 역시 결코 선교와 무관하지 않다. 올바른 선교라면 반드시 선교지의 삶을 성경적 진리로 바꾸어 나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문화와 선교는 영혼과 육체를 나누거나 성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상충되지 않는다. 선교는 문화의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문화 변혁은 선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5) 하나님 나라와 문화

구속의 결과로 오는 창조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동일한 것이다. 구원은 타락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란 구원 받아 변화된 삶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신약 성경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축약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지역’을 뜻하지 않는다. ‘나라’는 지리적, 공간적인 의미보다 ‘주권’의 의미가 더 강하다. 국가의 3대 조건을 영토, 국민, 주권이라고 할 때 타락으로 인간이 잃은 것은 ‘주권’이라 할 수 있다.⁸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주권을 사단의 지배 아래 넘겼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잃었던 주권의 회복을 말한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구속의 원리가 나타나는 곳에 임한다. 그분의 뜻이 인정되고 실현되는 곳이면 어디에나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국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좀 더 추상적인 학문과 예술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지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요, 회복된 창조라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문화와 동일시 될 수 없는 것으로 영적인 성격을 지닌다.⁸⁹⁾ 리차드 니버(H. Richard Niebuhr)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입각하여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로서 세계 변혁은 그분의 다스리심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⁹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별한 양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임한다. 이 나라는 초림으로 더불어 시작되었고, 재림과 더불어 온전히 임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 하셨다(마12:28). 이 구절은 타락 이후 사단이 지배하던 질서는 물러가고 새 질서가 임했음을 보여준다(마11:4-5). 하나님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임할 나라이지만 그 날이 오기 전에도 믿는 자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겨자씨와 누룩처럼 크게 번져 나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바른 기독교 문화관을 가지는데 매우 중요하다. 리델보스(Herman N. Ridderbos)는 이 부분을 ‘아직’과 ‘이미’의 이중 구조로 도식화한 바 있다. 하나님 나라는 재림 시에 완성될 것이므로 아직(not yet) 기다려야 할 나라이다.⁹¹⁾

88) Ridderbos, Herman N, *Coming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하나님 나라」(서울: 엠마오, 1987), pp.62-63,102-116.

89) Ibid., pp.102-116.

90) H. Richard Niebuhr, op. cit., pp.225-226.

91) Ridderbos, Herman N, op. cit., pp.152-155.

기독교 문화는 성경에 기초한 이론을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서 현실화 되지 않는다. 그것이 지향하는 이상인 하나님 나라는 말이나 종교 의식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같은 실천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롬14:17). 기독교 문화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원리에 일치하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 더욱이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긴장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음만을 강조하면 현세적 그리스도인이 된다. 반대로 장차 임할 나라만을 바라본다면 내세적 그리스도인이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처럼 어느 편으로 치우친 관점들은 모두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삶의 결과를 낳았다.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은 문화를 변혁하여 회복하는 자세로 나타난다. 문화와 사회는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위의 결과이다. 타락한 문화와 사회는 변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과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려는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최선의 방법은 부르심을 따라 그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V. 대중문화에 대한 개혁주의 목회적용

1. 개혁주의 목회관의 정의

개신 교회는 기독교회 안에 속한 하나의 종파인 서방교회의 흐름 중의 하나이며, 개혁주의란 개신교회 안에 속한 복음주의 중의 한 흐름이다.⁹²⁾ 개혁주의의 신앙 내용은 오직 성경 말씀 내용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시적인 세계의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의 영역, 즉 학문과 사상 등을 포함한 불가시적 세계의 모든 것까지도 그분의 주권 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간과 모든 만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시다. 특히 개혁주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 할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성도의 ‘기독교 문화 건설’이라는 개혁주의의 중요한 특성으로 발전하게 된다. 도피주의적 신앙인이나 종교개혁 시대의 재세레파들처럼 세상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분리시키는 태도나 기독교의 독특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현대 세속신학들과는 달리 개혁주의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보유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고후10:5)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는 신앙이다.⁹³⁾

92) 김광열, *장로교 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8), p.22.

93) Ibid., p.24.

이런 관점에서 개혁주의 목회란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목회자의 직무와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개혁주의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출발점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목회의 핵심은 기독교적인 문화와 기독교적인 삶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꾸려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 성숙시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경우 목회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신학적 기초를 결여함으로 소위 “뽕 잡는 게 때”라는 식의 결과지향적인 목회에 유혹을 받게 된다.⁹⁴⁾ 그뿐 아니라 대중문화의 도전 앞에 목회자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실용주의 목회철학과 세속적 기업경영과 같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이런 위기는 실천신학의 학문적 이론이 뒷받침되지 못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며 경험 제일주의적인 철학이 난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⁹⁵⁾

그러므로 이런 목회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보다 개혁주의 문화관에 입각한 개혁주의 목회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천방법으로 교육목회를 실시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범위나 내용에 있어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엄연한 현실이다. 가령 목회 사역에서 교육을 말하게 될 때에 먼저 주일학교 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교육하는 행위로 제한시켜 말할 때가 많다.⁹⁶⁾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들

94) 황성철, *개혁주의 목회신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4), p.25.

95) 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 출판사, 1993), p.108.

96) Ibid., p.110.

이 이런 실정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는 우리들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인들과 기성세대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교육은 어린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과 노인들도 교육해야 한다. 특히 대중문화를 목회현장에 적용함에 있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이 필요한데, 성경적인 안목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목회의 요구가 더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기독교 교육신학자인 코메니우스(J. A. Comenius)⁹⁷⁾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경건교육과 세상 지식의 교육을 하나로 묶어보는 평생교육이론을 범교육론⁹⁸⁾에서 주장한다. 전세대간(Whole generation)의 모임으로 구성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세대인 성장세대(어린이나 청소년)만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에게도 교육해야 한다. 특히 목회사역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유치등부나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만으로 제한하고 있음으로 성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부재함으로 교회 안으로 침투해 오는 대중문화의 도전 앞에 무참하게 무너지는 신앙의 현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개혁주의 목회의 패러다임이 어린이나 청소년세대, 장년세대, 그리고 노인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목회로 새로워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2. 대중문화를 적용한 목회 사례

97) J. A. Comenius는 철학자요, 신학자요, 교육학자이다. 그는 “인간 개선을 위한 일반적제언”이란 책에서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늙은이의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교육적 존재로 규명하고 있다(정일웅, *교육목회학* (서울: 솔로몬 출판사, 1993), pp.110-111).

98) “인간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제언”이란 책은 총 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4번째가 범교육론(Pampaedia)이다.

(1) 외국의 사례

1) 새들백교회⁹⁹⁾

새들백교회는 미국 남가주오렌지 카운티 남부지역에 위치한 전형적 교외(郊外)의 백인 중류층 거주 지역인 새들백 벨리에 위치하고 있다. 새들백 교회는 미국 주류교단 가운데 하나인 남 침례교단 소속의 교회로 1980년 릭 워렌 목사에 의해 개척되었다. 새들백 교회는 토요일, 주일 각 2번씩 4번의 주말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주말예배는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라고 표현한다. 이는 믿지 않거나,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려는 데서 나온 예배를 말한다. 새들백 교회는 그 지역 사회 주민을 ‘새들백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는 전형적 인물로 묘사하고, 그들의 삶과 의식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예배와 사역의 중요한 자료로 삼는다.

새들백 교회의 주요 사역중의 하나인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는 구도자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장애를 극소화시킴과 더불어 구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춘 예배이다. 믿지 않는 구도자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장애요소가 발생한다. 하나는 복음 자체가 주는 장애요소이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선포될 때, 그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결단하여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또 하나는 기독교 문화적 요소의 장애요인이다.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가 갖는 독특한 언어, 용어, 행동, 분위기, 음악 등이다. 전자(前者)의 장애요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나 후자(後者)의 경우는 극복이 가능한 문제일

99) 민병요,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해하려는 예배,” *목회와 신학* 94호 (1997. 4), pp.90-93 요약.

것이다. 새들백 교회의 예배는 바로 이 두 번째의 장애요소를 가능한 한 줄이므로,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교회예배가 전혀 생경한 의식으로 되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갖고 참여자가 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의 순서들은 되도록 끊어지는 일이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이는 예배가 지루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예배의 시작 찬송은 대부분 경쾌하고 빠른 템포의 현대 감각의 음악을 사용한다. 7-8명의 밴드가 반주하고, 아주 신나게 예배를 시작한다. 교회 예배에의 첫 인상과 기존신자들에게도 축제적인 예배 분위기로 시작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찬송은 공연형태의 찬송으로 설교와 밀접한 내용의 가사의 곡을 선택한다. 모두가 현대적 감각의 음악으로 구도자들의 문화적 감각에 맞는 찬송을 사용하며, 가사 내용도 되도록 신학적이거나 교회적인 난해한 단어들을 피하고 쉬운 언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이처럼 새들백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조사하고 파악하여 교회와 예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려를 하되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문화로 잘 담아낸 대표적 교회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월로우크릭 교회¹⁰⁰⁾

월로우크릭 교회는 빌 하이벨스 목사에 의해 1975년 10월 시카고 지역에 세워진 후 2,000여 개가 넘는 소그룹을 통해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이루었다. 월로우크릭 교회 역시 새들백 교회처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그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들에 대한 접근을 부드럽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헌금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적극적인 교회들에 의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으며,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져서 교회를 중단

100) 정 현, “월로우크릭 교회와 예수 세미나,” *두란노 목회 시사정보* (1996. 12), p.4.

한 사람들이 많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구도자 예배 (Seeker's Service)를 구상하여 드리게 되었다. 월로우크릭 교회는 예배 중에 연극이나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프로그램, 또는 현대적인 음악 등을 사용함으로 예배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오락적이라고 하는 비평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정수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월로우크릭 교회는 병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그들 속에 심어주는 작업을 한다.

3) 산호세 벤엘 교회¹⁰¹⁾

지구상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실리콘 벨리에 위치한 산호세 지역은 첨단 이미지에 걸맞게 세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몇 안 되는 특수한 신흥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으로 특별히 첨단 정보 통신과 컴퓨터 분야 등에서 야망과 출세를 꿈꾸는 수많은 세계의 젊은 엘리트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도 이리저리 유동하며 방향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이질적이고 다원적인 신앙과 종교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상황들은 비교적 전통적인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다른 목회적, 선교적 접근을 요구하는데, 이런 요구에 세워진 교회가 산호세 벤엘 교회이다. 그 교회의 담임목사인 케네스 답슨은 ‘문화적 상관성’(Cultural relevance)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목회 사역을 위한 모델을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101) 정병관, “문화적 상관성으로 지역을 도전하라,” *목회와 신학* 91호 (1997. 1), pp.40-48 요약.

그리스도가 언제나 문화적 통찰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친숙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갔던 것 같이 케네스 답슨은 산호세 지역의 문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면서, 그러한 문화적 범주들이 복음 전달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효과적인 도구가 되게 하는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산호세 뱀엘 교회는 진취적인 지역사회의 상황에 매우 적합하게 실제적인 목회 모델을 제시한다. 대개의 오순절 교회들은 세계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빈민 지역의 주민들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오순절 교회인 뱀엘 교회는 이러한 예상을 벗어나고 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형적인 오순절 교회의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의 주민들과 연령상 안정기로 접어든 중년층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문화적 상관성’을 반영하는 목회 사역 때문이다.

실제로 이 교회의 설교, 예배, 행정, 프로그램 등은 철저히 지역의 문화와 주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저히 저들의 대중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 주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비형식적이며, 자발적인 예배이다. 예배 전에는 4-5명이 찬송을 인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찬송 인도 시간에 이미 성도들은 분위가 충분히 고조되어 대규모의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마치 음악회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성도들에게 ‘심령에의 개방’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펫 소리가 유난히 예배의 분위기를 은혜에 젖게 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한다.¹⁰²⁾ 예배당 전면의 대형 스크린은 찬송가 가사와 성경 구절, 광고 등을 보여줌으로써 충분한 의사소통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의식 자체는 간단하고 단순하

102) Ibid., p.43.

나, 예배가 주는 열정과 신선함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고무시키고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 뵤엘 교회는 신흥 지역의 교회가 안정된 공동체 의식과 적당한 회합 장소로서 신앙적 의미 이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들어와 융합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사회 모든 주민들에게 개방된 레크레이션 활동들이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레크레이션 사역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테니스대회, 야구 경기, 농구 경기, 골프 교실, 배구 대회, 알래스카 낚시 모험 여행, 여름 골프대회 등을 주관하고 있다. 교회 안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체육관은 이러한 행사들을 주관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레크레이션 사역을 보다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레크레이션 전임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다.

뵤엘 교회는 산호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여 이와 상관적 목회를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뵤엘 교회의 프로그램을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문화 변혁적 목회의 원칙은 오늘 문화 변혁을 필요로 하는 한국 교회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하다.

(2) 우리나라의 사례

1) 창천감리교회¹⁰³⁾

1906년 8월 정동교회의 지교회로 시작된 창천교회는 97년의 역사 속에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장해 나가고 있다. 대학가에 위치한 창천교회는 젊은 영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바탕으로

103) <http://www.changchun.or.kr>

문화쉼터를 통한 차세대 젊은이 선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창천감리교회는 서울 대학가 주변인 신촌에 위치한 교회이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역에 힘쓰고 있다.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쉼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통해서 젊은이들과 주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쉼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졌던 창천교회의 입장은 이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그 열매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점이다. ‘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대가없이 공간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갈등, 그리고 희망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적, 물적 주체가 되지만 복음전도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으며 단지 믿지 않은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양질의 대중문화를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문화쉼터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매월 4주를 기준으로 첫째 주에는 영화 상영을 하고, 둘째 주에는 대중가수를 초청한 문화공연을 가지며, 셋째 주에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공연을 하고, 그리고 넷째 주에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콘서트를 가지며, 또한 다섯째 주가 있을 때에는 특별 공연을 기획하여 무대에 올리게 된다. 문화쉼터의 운영을 보면 문화쉼터 담당목사와 총괄 기획자, 자문, 각 프로그램 담당 책임자와 쉼터지기장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재정은 약1-2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이는 교회예산과 교회 일부 공간을 이용한 주차장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다. 주차장 수입은 모두 지역 사회로 환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화쉼터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또 문화쉼터는 2003년 5월 신촌에 CCM 카페를 오픈했다. 카페에서는 교제의 공간과 공연의 장으로 좀 더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 하나의 ‘쉼터’를 마련했다.

2) 신사동 교회¹⁰⁴⁾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을 포착해서 예배와 선교의 장으로 일궈가는 교회가 있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신사동 교회가 그 교회이다. 직장인을 위한 정오 ‘수요문화예배’는 담임목사 최홍규 목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수요일을 택한 것은 신도시 개발로 교회와 교인들의 생활 근거지가 멀어 수요일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본 교회 및 타 교회 교인들에게 예배드릴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각 주별 프로그램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¹⁰⁵⁾ 첫 주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예배 형태를 벗어나 프로그램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하고 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모든 프로그램은 늦어도 12시 40분까지는 마치게 된다. 문화를 복음의 매체로서 이용하려는 이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참석자들의 수가 늘면서 재정만 소모할 뿐이라고 염려하던 일부 성도들도 점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오예배 참석자들을 통해서 교인수를 불러 보려거나 타 교인을 신사동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욕심은 전혀 없다. 단지 문화매체를 통해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접할 기회를,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을 성장시킬 기회를 주는 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신사동 교회의 이러한 직장인 예배 프로그램은 ‘구도자에 민감한 예배’와 ‘기존 신자 중심의 예배’ 형태를 절충하고 있다. 완전히 전도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 선교(再宣敎)의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참석자들의 연령이 2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균형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탓이다. 문화 프로그램들도 교회 규모에 맞는 진행으로 대형 극장이 아닌 소극장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지

104) 이석열, “12시에 만나요, 신사동 교회”, *목회와 신학* 95호 (1997. 5), pp.210-212 요약.

105) Ibid., pp.210-211.

출이나 교회의 에너지 소비도 크지 않다. 그러나 교회의 관심은 주변 직장 내의 신우(信友)회 조직을 도와, 각 직장별로 예배를 담당하게 하고, 1년에 1-2회 정도는 업종별로 체육대회나 야유회를 가질 수 있는 신우(信友)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신사동 교회의 ‘직장인을 위한 정오 수요문화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문화를 변혁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3) 사랑의 교회¹⁰⁶⁾

사랑의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의도로 기획되고 준비되고 있다. 먼저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모든 예배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모든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네 가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11월부터 주일예배를 다양화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드리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예배와 찬양 예배의 중간 형태로서 말씀과 찬양을 강조하는 예배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말씀을 강조하는 전통적 예배 형태로서 많은 기성 교인들에게 익숙한 스타일이다. 세 번째 유형은 현대적 찬양을 강조한 예배 형태이다. 사랑의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유형을 다 사용하며 매달 계획에 따라 순환 시키고 있다. 이렇게 예배를 다양하게 드리는 것은 다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06) 김만형,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목회와 신학* 113호 (1998. 11), pp.90-98 요약.

사랑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 방향 중의 하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사랑의 교회는 이를 위해 전력해 왔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대각성전도집회이다. 이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를 교회에 초대하여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집회이다. 이것은 1년에 1-2회로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1년에 1회로 시행하고 있다. 대각성전도집회의 좋은 결과들을 일상생활화 할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열린 예배이다. 현재 우물가선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땅’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열린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 열린 예배를 통해 드라마나 비디오, 음악, 춤 등의 문화적 요소를 통해 인생의 이슈들을 내면화시키고, 복음 메시지를 알기 쉽게 선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을 교회로 이끈다는 것이다. 둘째, 열린 예배를 통해 교회 전체에 전도에 대한 신선한 도전을 제공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않은 이웃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내의 은사를 가진 인재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그 은사를 복음전파와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이끄는 것이다. 사랑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예배이다. 물론 제자훈련으로 교회가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자훈련 못지않게 강조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이다.

3. 개혁주의 목회의 적용

앞에서 대중문화를 목회 현장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개혁주의 목회 관점에서 이런 사례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의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독교의 독특한 가치들은 생활 속에 표현되지 못하고 생각 안에만 머무는 것이 되어 그 생명력이

점점 희미해지게 되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지속적인 생명력은 교회 교육이 그 사명을 다음 세대 속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공동체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대하는가 하는 것에 실질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공동체가 신념을 형성하고 틀을 잡아주는 그 과정과 구조에 대한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세계관의 변화들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¹⁰⁷⁾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대중문화의 세계관의 변화에 민감하기 보다는 그것과의 단절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현대 대중문화는 현대인들의 세계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는 취약하다. 이러한 사이에 대중문화는 여러 면에서 기독교가 수행해 온 역할들과 제도들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대중문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 가치, 신념을 표출하고 과거의 현실과 그 현실에 기초한 과거의 종교적 견해를 대신하는 대안적 세계관을 제공하는 종교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¹⁰⁸⁾

현대 대중문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문화의 중심에는 대중문화가 그들의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컴퓨터와 인터넷과 같은 멀티미디어의 영향은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의 성장 세대들은 컴퓨터와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술자들로 변하여 기성세대로 합류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멀티미디어 시대의 절대 영향 아래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선교와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목회는 멀티미디어를 선교와 목회적 도구로 활용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는

107) Charles Foster, “교회를 찾는 교육”, Jack L. Seymour · Donald E. Miller Ed., *Theological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김재은 · 임영택 역, 「기독교교육과 신학의 대화」 (서울: 성광문화사, 1994), pp.150-151.

108) William Fore, *Television and religion : the shaping of faith, values, and culture*, 김성웅 역,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본) 텔레비전」 (서울: 두란노, 1993), pp.29-30.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⁰⁹⁾ 그러나 문제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큰 흐름인 대중문화가 성도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의 목회적용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에도 너무 취약하다. 여기에는 개혁주의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들도 외에는 아니다. 특히 교사나 목회자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발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신세대들의 대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이버문화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본다. 이처럼 대중문화가 한국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날로 넓혀 가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계가 반(反)대중문화 또는 대중문화 배격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경험되는 문화적 도전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종의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 역시 문화적 급변과 도전 앞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평가, 분석하고 걸러야 할 것은 걸러내고 수용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활용해야 한다. 특히 목회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1) 대중문화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과 태도 변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방어적 태도, 기회주의적 태도 그리고 정복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와 기독교를 대립시키는 이원론에 근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사회 속에 침투시킴으로써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그러

109)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p.466.

나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 정서적인 반응들, 전통들, 그리고 삶의 양상을 나타내는 대중문화에 민감하지 않고서 이러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중문화에 둔감한 채 목회를 하게 될 때 목회 의미는 상실되기 쉽다.¹¹⁰⁾

21세기는 대중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컴맹의 세대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의 문화에 대한 문맹인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목회 현실도 그와 같은 양극화가 상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먼저 컴퓨터 사용의 기술을 익혀야 하며, 멀티미디어 사용과 함께 인터넷의 활용은 목회의 필수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¹¹¹⁾ 인터넷시대의 목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오프라인으로만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합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해야 한다. 정보화 시대의 목회자는 교회와 교인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목회행정적인 차원에서 정확한 개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개인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측정하며, 개별적인 신앙 지도와 상담에 기본 정보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홈페이지나 목사 개인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언제든지 평신도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화의 장을 통하여 진솔한 건의와 비평과 평가의 소리를 듣는 장이 되게 해야 한다.¹¹²⁾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교회의 홈페이지가 교회를 소개하거나 교회공동체의 커뮤니케이션만을 위한 수준에서 지역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접촉의 장이 되도록 지역정보의 사이트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회자는 멀티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이

110) James E. Means, *Effective Pastors for a New Century*, 배헌석 김응국 공역,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서울: 나침반출판사, 1997), p.34.

111)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p.471.

112) Ibid., p.470.

다.

목회자들은 대중문화를 대함에 있어 복음전도에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취급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의 도구로 대중문화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문화를 선교방법의 도구로써만 아니라 대중문화 자체를 선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선교의 대상인 사람을 포함해서 문화의 영역까지도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 대중문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분별하고 나아가 변혁(transformation)을 지향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 즉,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요약되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대중문화를 변혁해가는 목회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중문화를 단순히 전도와 선교에 이용하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형성해 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대중문화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타락한 세속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야 한다.

(2) 교회학교의 성경적 세계관 교육실시

오늘날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오락 추구가 문화적 위기의 본질임은 앞서 지적한 바가 있다. 현대 대중문화는 대개 재미에 조준되어 있다. 교양이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가치나 윤리도 아예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오락을 지나 퇴폐적이 되기도 한다. 성(性)과 폭력은 문화의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이런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향락적 문화가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파괴적인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은 찾아야 한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포기해버리고 은둔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아니다. 또한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쾌락주의뿐 아니라 이 시대의 정

신인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의 뿌리는 자유주의이다. 이런 사상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가치관이 극히 혼란한 시대에 문화적 다양성을 근거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은 있다.

먼저 문화적 다양성을 근거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를 옹호하지 않도록 분명한 성경적 세계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성도들에게 창조 질서와 그것의 규범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상대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다. 바른 문화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세계를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 시대의 대중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문화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특히 개혁주의 목회관에 입각한 목회를 통해 잘못된 문화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대안으로 가정을 포함한 신앙 공동체의 문화적 영향력과 그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정과 교회는 삶을 규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을 통해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신앙 공동체는 이 역할을 점차 상업적인 연예 산업과 대중 매체에게 빼앗기고 있다. 물론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문화는 대부분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에 반대된다. 따라서 가정과 교회는 비평을 통해 먼저 이를 거르는 정수기 역할을 해야 한다.¹¹³⁾ 이런 정수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입각한 세계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세계관 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의 중·고등부나 청년부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이제는 성인들에게도 이런 세계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가 처해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는 윤리나 종교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이런 세계관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113)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pp.186.

(3) 예배에 있어서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성례전의 강화

대중문화 변혁의 한 연장선에서 예배의 갱신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순절과 부활절 축제로서 변혁된 대중문화의 모습을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낡은 감성과 문화 환경을 가지고서는 세상의 변혁은 고사하고 교회도 지킬 수 없다. 오늘날 전통적인 교회 문화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를 뒤쫓아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교회의 전통적 가치와 진리에 새 옷을 입힐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복음의 활력과 적절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내는 감수성을 익혀야 한다.¹¹⁴⁾ 여기에 무엇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 있는 예배형식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현대인들은 인쇄된 지면을 통하여 읽고 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스크린을 통해 보여 지는 이미지(image)를 보고, 소리를 들음으로써 즉각적으로 의미를 전달받고 있다. 다시 말해 현대인들은 직관과 감성 그리고 이미지와 그림, 이야기 등 보다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다.¹¹⁵⁾ 다시 말해 단순한 언어를 매체로 하여 드러지는 예배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청각 사용의 도구에만 전적으로 의존된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에서 오감(五感)작용에 의한 풍부한 이해와 감성을 경험하도록 배려하는 예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¹¹⁶⁾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청각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직관적이며, 시청각적인 문화적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상당부분 멀티미디어의 도구

114) 신국원,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p.345.

115) 주승중, “예배의 회복과 설교사역,” *교육교회* 1999년 3월호, pp.22-23.

116)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p.468.

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런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항상 비판의식을 갖고 사용해야 해야 한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예배에 적용함에 있어서 드라마를 이용한 예배가 요구된다. 드라마는 교회가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이다.¹¹⁷⁾ 한국 교회에 소개된 열린 예배는 주로 드라마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윌로우크릭 교회가 행하는 방법은 미국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이혼, 낙태, 성범죄, 마약, 살인 등)와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드라마를 통하여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해결의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려 하는 예배의 방법이다.¹¹⁸⁾ 물론 모든 예배를 드라마로 표현한다는 것은 많은 재정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에 드라마 예배를 통해 예배한다면 분명 예배를 새롭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서 열린 예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있다. 원래 열린 예배는 구도자의 예배(Seeker's Service)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는 초신자나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행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열린 예배는 엄밀히 말해 예배라는 이름보다는 전도 집회의 행사라는 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아진다. 초신자나 불신자들만을 위한 전도 집회적인 행사로서 자유롭게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다.

사실 기독교의 예배가 원래 열린 예배이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 예배에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존 신자들의 예배 안에서 한 순서로서 그들을 환영하고 소개하는

117) Ibid., p.293.

118) Ibid., p.293.

모습이 열린 예배의 모습이다. 그리고 기존예배가 실제로 불신자들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은 예배이며, 누구나 참여하도록 개방된 예배라는 것을 전제할 때, 교회의 예배는 실제로 열린 예배가 되도록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기존 신자들만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 예배하는 환경이 되도록 예배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다. 진정한 열린 예배를 위해서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예전의 언어적 표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도의 언어와 찬송의 시적인 언어의 표현, 그리고 설교의 언어적 표현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다. 그리고 예배 환경과 시설 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¹¹⁹⁾

그러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성례전을 강화해야 한다.¹²⁰⁾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기독교의 예배의 원형은 원래 설교와 성찬이 함께 있는 모습이다.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일들을 증거 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소리로 들을 뿐 아니라 직접 들으며 보고, 만지며, 냄새 맡고, 맛보는 오감(五感)작용에 의하여 고백하는 일로서 중요한 의미와 의의를 가진다.¹²¹⁾ 이것은 의미 전달에 있어서 확실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례도 역시 물을 사용하는 은혜 전달의 상징적인 매체이다.¹²²⁾ 특별히 유아세례는 아이와 부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기적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항상 세례 베풀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출생한 자녀들이

119) Ibid., pp.273-277.

120) Ibid., pp.470-471.

121) Ibid., p.470.

122) Ibid., p.292.

나 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세례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한다.¹²³⁾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설교와 성례의 예전이 함께 통일된 모습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어느 한 쪽만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지게 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종교개혁의 전통은 설교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반면, 오히려 성찬 중심의 예전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기독교는 미디어 사용의 가치를 설교 중심의 예배 형태에다 두고 있는 것이다.¹²⁴⁾ 물론 멀티미디어는 설교 중심의 예배를 문자와 소리와 영상의 매개를 통하여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역시 한계가 되는 것은 성찬에 대한 가치를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¹²⁵⁾ 그러므로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 회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풍성하게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성례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성례전을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목회 현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4) 설교 및 성경공부에의 적용

전통적인 설교와 성경 공부 방식은 일방적인 선포의 방식이나 전달의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이제 멀티미디어의 사용이 가능함으로 말미암아 문자와 소리뿐 아니라 실제적인 정황에 가까운 영상을 동반하여 풍성한 이해와 행동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설교와 성경 공부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설교와 성경공부의 개발이 시급하게 요청된다.¹²⁶⁾ 현재 이런 멀티미디어를 통해 캐터키즘(Catechism)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성덕중앙 교회¹²⁷⁾로서 이 교회는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123) Ibid., p.292.

124) Ibid., p.471.

125) Ibid., p.471.

126) Ibid., p.469.

127) www.ehappy.or.kr. 담임목사인 김준수 목사는 *디지털 기독교 강요*(규장문화사,

서 ‘팜피 6포인트 교육’을 통해 코메니우스의 범교육학(Pampaedia)을 현대화시키고, 보다 개인화 시켰다. *기독교 전인교육 시스템 기본 교육 교재*¹²⁸⁾를 발간할 뿐 아니라 특히 캐터키즘(Catechism)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캐터키즘(Catechism) 교육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지식을 전수하는 것과 초신자와 성장 세대의 신앙관 확립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역사적인 캐터키즘(Catechism)은 언제나 그 시대의 교회의 신앙 고백(Confession)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캐터키즘(Catechism)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은 초신자들과 성장 세대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신앙의 가르침을 통하여 일치된 그리스도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인도함을 의미한다.¹²⁹⁾ 실제로 한국 교회의 학습과 세례 준비 교육이 역사적인 캐터키즘(Catechism) 교육이 시행되는 교육의 장(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캐터키즘(Catechism)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 도구로 VTR 제작과 만화로 소개된 것을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사랑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130*라는 소책자 서론의 내용을 VTR로 만들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가 대중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성공과 실패는 일차적으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설교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해서 전파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체계로써 그 시대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변화시키

2000)를 통해 교리교육의 현대적용의 가능성을 열었다.

128) Dic's Family Learning(디지털 기독교 강요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암송할 수 있는 학습교재: DFL이라 부른다.)

129) 정일웅,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pp.352-353.

130) 옥한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1992). 이 소책자는 5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신자를 위한 새가족모임 성경공부 교재이다.

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反)복음적인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의 근본적 기초를 드러내어 심층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야만 한다.¹³¹⁾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설교는 대체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으며, 포스트모던 상황에서도 그러한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현실에 대한 부정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강조하던 경향에서,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성장’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아왔다.¹³²⁾ 우리는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설교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유추할 수 있다. 설교자가 깊이 새겨야 할 원리는 성경의 진리에 기초한 책임 있는 설교는 포스트모던 문화의 기초가 되는 왜곡된 세계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세계관적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관적 도전이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성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과 문화를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¹³³⁾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인간의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창조 세계 전체의 구원을 위한 것처럼, 설교자의 세계관적 도전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설교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명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체계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 체계를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¹³⁴⁾ 설교자가 불신자들을 향하여 성경에 계시된

131) 최재호, *대중문화와 성경적 세계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pp.252-253.

132) Ibid., p.253.

133) Ibid., pp.264-265.

진리의 체계를 전달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나 수사학적 기법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에 의지해서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표현과 아이디어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경에 계시된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선이다. 본질적으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논쟁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 다만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뿐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선포하는 설교자는 청중들의 취향에 맞추고, 전달 기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지적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성경적 대안과 해결책을 선포하면서 궁극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호소하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야만 한다.¹³⁵⁾

(5) 찬양사역에서의 적용

요즈음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화적 혼란과 갈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중음악과 관련한 문제들이 아닌가 한다. 예배에서의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중요한 신앙의 표현이다. 한국 교회에 복음성가나 경배와 찬양,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등이 예배에서 불리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예배 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많은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세대 교인들이 향유할 대안적 대중문화로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역할이 교회 내의 설득력을 얻으면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 당위론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음악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¹³⁶⁾

134) Ibid., p.265.

135) Ibid., pp.265-266.

136) 강인중, “교회와 대중음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엮음, *대중문화, 더*

사실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¹³⁷⁾

찬성론

(1)교회는 다양한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에 맞는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신세대 교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기독교 음악이다.

(2)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을 거부감 없이 교회로 인도하는데 적합한 음악이며 대중문화적 특성을 활용, 대다수의 비 기독교인들이 부담 없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전도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3)음악은 본래 가치중립적인 것이다. 메시지가 중요하다. 구약의 예배에는 매우 왕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음악사용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록 음악 등 비트가 강한 음악에도 기독교 메시지를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다.

(4)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교역자나 기성세대 교인들은 현시대의 대중음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극히 빈약한 사람들이거나 보수주의자들이다.

반대론

(1)복음과 같은 거룩한 주제를 세속적이고 오락적인 양식을 표현할 수 없다.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사탄이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해 사용하고 있는 전략 도구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2)성경 어디에도 음악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한 예가 없다. 비기독교인들은 세속적 음악을 흥내낸 교회음악보다는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기독교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p.223.
137) Ibid., pp.223-225.

음악에 매력을 느낀다.

(3)음악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은 분리할 수 없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악기에 의한 찬양이 언급되는 것은 악기 사용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음악의 모든 스타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4)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교회가 아닌 기독교 음반 산업계와 아티스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영성보다는 이윤 추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처음부터 상업적 목적에서 탄생한 문화이다.

이상과 같은 입장을 정리해서 평가를 해 본다면 다양한 음악언어로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이며 교회가 음악 속에 시대적인 혹은 사회, 문화적인 가변요소를 인정하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도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모든 형태의 기독교 음악이 가능하다는 극단적인 견해로 이어지는 안된다. 음악에 있어서 형식과 내용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대 대중음악을 찬양에 도입하되 음악 스타일의 채택에 있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음악적 전통과 문화적 정서가 무시되지 않은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가장 잘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는 양식을 선별해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³⁸⁾

(6) 대중문화에 대한 교회와 가정의 교육의 연계성

건전한 문화 환경을 만들고 이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전수해 나가는 노력은 개혁주의 목회 전략의 기본이다. 목회자와 교사들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자녀들의 문화생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큰 관

138) Ibid., p.225-226.

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확대된 가정으로서 신앙 문화를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의 친밀감 속에서 체험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가령 ‘순결 사역 운동’같은 행사를 통해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신앙적 가치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예이다.

기독교 문화는 반드시 고급문화만을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기초하여 시대에 필요하고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신앙적 문화 전통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본인의 경우 청, 장년들을 대상으로 한국기독교 성지를 탐방하는 취지로 5박6일의 전국일주를 통해 한국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문화 전통을 배우게 되는 기회를 가졌다. 많은 경우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오는 경험은 있어도 정작 한국 교회의 역사와 뿌리를 찾는 데는 인색한 감이 많은 사실이다. 특히 경제적인 수준의 향상과 삶의 여유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행을 하게 될 때 이런 한국 기독교 성지를 탐방하며 한국 교회의 복음화 현장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화 행사라고 생각한다.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도 한국 교회의 뿌리를 찾기 위한 교회탐방과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4. 개혁주의 목회의 적용한계

지금까지 우리는 대중문화를 목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전제하여 적극적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개발하여 복음 전파와 목회 사역에 도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멀티미디어 시대에 우리의 목회와 신앙 교육을 새롭게 실천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를 목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멀티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책임 있는 선용이 이루어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그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선교적 도구로 이용해야 함을 뜻한다. 특히 우리의 성장 세대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대적 변화를 그들이 겪을 것이며, 멀티미디어의 사용에 희생될 위험도 함께 있다고 본다.¹³⁹⁾

(1) 예배와 설교 적용에 있어서 한계

무엇보다 인터넷, TV 그리고 CATV를 활용해서 드리고 있는 사이버 예배의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다. 컴퓨터나 TV를 통해 드러지는 예배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은 인간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친밀감과 관계성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에는 개인주의에 빠지고 신앙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기독교방송(CBS, CTS)들이 주일 예배를 실시간 가정으로 중계됨으로 주일 예배의 참여가 줄어들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붕괴 위기를 초래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설교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전문적인 텔레비전 설교자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나 TV, CATV등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시청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TV나 인터넷 같은 통신 매체나 기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과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평가한 다음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많은 설교자들은 문화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순히 통

139) 정일용,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p.472.

신 기술을 설교에 도입했으며, 적은 비용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막대한 성취감에 빠져 있다. 따라서 책임 있는 설교자라면 텔레비전 설교자들이 강조하는 것과 같은 실용주의적 복음과 세련된 전달 중심의 방법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¹⁴⁰⁾

대형 교회를 중심한 위성예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많은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 교회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와 교세를 확장하겠다는 기업적인 발상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분점 교회를 세워 위성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미명하에 교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 있던 교인들마저 대형교회로 옮겨가는 형편이다.

(2) 멀티미디어의 적용에 있어서 한계

컴퓨터는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 컴퓨터 기능 중에 인터넷은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전송처리 속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속도는 더 빠르고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와 예배 그리고 목회행정에서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독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접속에 대해 강박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며,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도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금단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심

140) 최재호, op. cit., p.263.

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신종범죄와 음란한 포르노 영상들의 송수신의 문제이다. 한 개인의 성생활을 인터넷상에서 동영상으로 공개를 한다거나, 사이버 섹스, 자살 사이트, 폭탄 제조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멀티미디어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 그 지혜로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열린 예배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한계

미국 교회의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와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린 예배(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 집회)가 새 신자를 많이 얻고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기독교의 예배가 갖는 독특성을 간과한 채 예배라는 형태로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많은 사람들을 한 교회로 모이게 하려는 선교전략과 방법이 비 복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¹⁴¹⁾ 그리고 구도자 예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나치게 유희과 오락적인 것으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물론 열린 예배가 시작된 의도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눈높이 맞게 복음을 전한다는 의도는 분명 좋았지만, 성경적인 예전에 근거한 예배의 의미를 상실한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다.

사실 기독교의 예배가 원래 열린 예배이다.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예배에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존 신자들의 예배 안에서 한 순서로서 그들을 환영하고 소개하는 모습이 열린 예배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 신학적 통찰에 의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새로운 예배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커뮤니케

141) 정일용,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p.270.

이션을 위한 현대적인 매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예전 중심의 예배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열린 예배가 유흥과 오락적인 것으로 전락시켰다면, 음악에 있어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배의 찬양에 있어서 지나치게 오락성이 강한 음악 양식의 채택은 자칫 복음을 가볍고 값싼 것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은 아주 적절하다.¹⁴²⁾ 최근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경우, 서구적인 세련미와 오락성이 강조되는 경향으로 흐르면서 우리 복음성가 고유의 소박함과 진지함이 점점 사라지고 경건성이 희박해져간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회를 등지는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적 배려의 차원에서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교회에서는 과연 청소년들이 지금의 복음성가만으로는 부족한가, 또는 찬송가는 젊은이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없는 고리타분한 노래에 불과한가도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신세대를 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복음적 대중음악으로서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대한 가치 평가는 이 음악이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느냐의 잣대에 의해 판가름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¹⁴³⁾

142) 강인중, “교회와 대중음악”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엮음,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p.226.

143) Ibid., p.226.

VI. 결론

이제까지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과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의를 해왔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대중문화시대이다. 대중문화는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매일 마시는 공기와 같다. 그런데 그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는데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대중문화를 배타적 시각으로만 보려하거나, 반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목회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회는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자리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대중문화를 대함에 있어서 성(聖)·속(俗) 이원론적 틀로 규정짓는 우(愚)를 범해 왔다.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며, 오염된 공기와 같은 대중문화를 어떻게 하면 정화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다. 물론 우리의 질문은 대중문화 자체 요소(예술, 학문, 멀티미디어 등)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대중문화 이면에 숨겨진 사상(思想)과 가치관(價値觀)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批判)한다는 가정(假定)하에서 본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한계 상 대중문화 자체 요소의 특성이나 내용들에 대한 연구는 본 논문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우리는 대중문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논했는데 첫째, 문화의 정의(定議)에서 문화는 인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총체적인 삶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둘째, 현대 대중문화는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대중매체의 문화로서,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확산되고, 현대의 사회구조나 문화산업의 질서가 그대로 옮겨진 문화라고 정의했다. 이런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셋째,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중문화가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 보면서 현대 대중문화의 현실을 소개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대중문화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현대 대중문화의 특성은 외래성과 종속성 그리고 지나친 상업성에 근거한 문화수요 팽창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문화수요 팽창으로 인하여 대중문화는 향락적이고, 오락적으로 되어 버렸다. 이로 인한 피해는 마치 물이나 공기가 오염된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중문화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포스터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眞理)를 거부하고 진리의 우연성(偶然性)과 개연성(蓋然性)을 주장하는 상대주의(相對主義)이론을 낳게 했다. 또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멀티미디어의 이윤 추구로 말미암는 상업주의로 인한 저급(低級)성·편의성·쾌락적 속성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런 대중문화의 현실과 문제들을 기독교는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대중문화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도구로서 개혁주의 문화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다. 먼저, 기독교 문화관의 정의를 통해 문화는 본래 인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것으로, 기독교 문화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려는 원리에 서 있다. 그러나 죄와 타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속 문화와 구속된 문화는 공존하기 때문에 문화의 세계에서는 대립과 긴장이 발생한다. 이런 긴장과 대립관계를 전제(前提)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문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대립, 수용, 지배, 긴장, 변혁으로 정리한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의 유형론을 통해 개혁주의 문화관의 입장이 변혁적 입장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부정적이며, 무관심한 것을 또한 지적했다. 특히 대중문화에 대한 방어적 태도와 기회주의적 태도, 그리고 정복주의적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개혁주의 입장을 취할 것을 강조했다.

개혁주의 문화관은 창조, 타락, 구속의 세계관을 통해 문화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관에 초점을 맞추어 창조와 문화 명령, 타락과 문화의 부패, 구속과 문화의 회복, 문화명령과 지상명령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결국 개혁주의 문화관은 대중문화에 대하여 반(反)문화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문화를 변혁하여 회복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중문화를 변혁하여 회복하는 개혁주의 문화관을 가진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논하였다. 먼저 개혁주의 목회를 정의하면서 목회자는 개혁주의 문화관의 관점을 갖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문화와 삶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육목회를 강조했다. 특히 지금까지 교육목회의 범위를 어린이나 청소년만을 교육하는 행위로 제한했다면 이제는 교육목회의 지평을 넓혀서 청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교육할 것을 주장했다. 코메니우스의 주장처럼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시작하여 늙은이의 죽음을 준비하는 평생 교육을 해야 한다. 개혁주의 목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이고,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인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목회로 새로워지고, 강화되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다음은 대중문화를 적용한 사례들을 외국과 우리나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사례 교회들의 공통점은 불신자와 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각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주민들의 문화를 잘 분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방법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이들 교회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은 구도자 예배나 열린 예배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는 점과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 했다는데 장점이 있다.

특히 예배 가운데 드라마, 연극, 찬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복음 진리의 전달은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를 목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그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개혁주의 목회에 입각하여 대중문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고찰해 보았다.

아무리 좋은 이론(理論)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實踐)하는 현장이 없다면 그 이론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는 것처럼 개혁주의 목회관을 가져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 방안으로 첫째, 대중문화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강조했다. 목회자가 문화와 기독교를 대립시키는 이원론에 빠져 있다면 문제는 크다. 목회자는 대중문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자신이 먼저 멀티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복음전도의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 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둘째, 대중문화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중문화의 이면(裏面)에 있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쾌락주의, 상업주의, 다원주의, 상대주의 등을 철저히 배격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교육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관 교육도 중·고등부나 청년뿐 아니라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문화는 윤리나 종교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기에 이런 세계관 교육은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셋째, 예배에 있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과 성례전의 강화를 언급했다. 예배에 있어서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청각에 의존한 전통적인 예배에서 오감 작용에 의한 풍부한 이해와 감성을 경험하도록 배려하는 예배를 강조했다. 특히 예배가운데 설교뿐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베푸는 성례전을 통해 기독교 예배의 원형을 회복할 것을 역설했다. 하나님 말씀의 설교도 풍성할 뿐 아니라 성례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네 번째, 설교와 성경공부에 있어서 멀티미디어의 사용을 권장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멀

티미디어를 활용하는 설교와 성경공부의 개발이 요청된다. 특히 케터키즘(Catechism)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개발은 우리 교회들이 시급(時急)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설교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성장’ 이데올로기나 ‘번영’ 이데올로기에 영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데올로기의 왜곡된 세계관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세계관적 도전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 설교의 사명임을 재차 강조했다. 다섯째, 찬양 사역에 있어서 대중문화의 적용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음악 스타일의 채택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와 복음의 내용이 손상되지 않고 가장 잘 표현되고 이해 할 수 있는 형식의 찬양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대중문화에 대한 바른 수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의 교육 연계(連繫)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대중문화를 목회 현장에 적용하면서 한계점을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예배와 설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의 친밀성과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며, 멀티미디어가 내포하는 위험성과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과 TV를 통한 사이버 예배와 위성예배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체의 여러 가지 피해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열린 예배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문제는 바르고 건전한 관점을 세워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린 예배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전도 집회’라는 말로 사용하고, 실제로 기존 예배에서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열린 예배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형식이나 내용에서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대 대중문화를 개혁주의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몇 가지 얻는 교훈이 있다.

첫째, 일상(日常)화 되어 버린 대중문화를 무조건 배격하거나, 수용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독교적인 문화관을 갖고 수용하며,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문화 변혁적 입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가끔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의식을 깨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평소에도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른 기독교인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 제자훈련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목회 현장에 이미 들어와 버린 대중문화와 대중문화를 매개하는 멀티미디어들의 이면에 있는 문제점들을 직시(直視)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먼저 대중문화에 대해 민감하고, 대중문화를 활용함에 있어서 바른 관점을 잃지 않으려는 연구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셋째, 교회에서 성도들의 의식을 깨우고, 목회자들의 관점을 새롭게 할뿐 아니라 대중문화 개혁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정과 교회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대중문화에 대한 변혁적 활동은 제한적이다. 가령,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와 같은 곳은 개인이나 개교회가 벌이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많은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이런 운동은 자칫 간과하기 쉬운 대중문화의 윤리적 책임

을 상기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끝으로 목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회자의 직무와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이므로 대중문화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원칙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대중문화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정신으로 감당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대중매체인 멀티미디어의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한 연구들은 다음 분들을 위해 남겨두고 이 글을 맺는다.

참고 문헌

단행본

- 강영안, 김연중, 신국원의 공역. *대중문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문화전략위원회 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김광열. *장로교 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98.
- 김점옥. *차세대 한국교회의 모델*.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김정기. *현대사조의 기독교적 조명*. 서울: 성광문화사, 1991.
- 김진홍. *교회의 갱신*. 서울: 엠마오출판사, 1986.
- 박남훈. *광고와 매스미디어 후기자본주의의 문화논리*. 서울: 세종출판사, 1999.
- 박양식. *문화를 알면 사역이 보인다*.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4.
- 박영욱. *철학으로 대중문화 읽기*. 서울: 이룸, 2003.
-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문화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서철원. *기독교 문화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2.
- 성인경. *아담과 문화를 논할 때*. 서울: 낮은올다리, 1998.
- 손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서울: 나비, 1989.
- 송준섭. *현대문화와 텔레비전이라는 굴레*. 서울: 선한이웃, 1993.
-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5.
- _____.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2.
- _____. *변혁과 살림의 대중문화론*.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04.
- _____.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9.
-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출판부, 1990.
- 오정현. *목회트렌드 2000*. 서울: 규장문화사, 1997.
- 원용일. *문화의 유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이상훈. *문화로 엿보는 그리스도 예수로 바라보는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이성희. *밀레니엄목회 리포트*.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이숙경. *기독교교육과 문화이해*. 서울: 그리심, 2005.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5.
- _____. *칼빈주의 연구*. 서울: 한국칼빈주의연구연, 1992.
- 정일용.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출판사, 1993.
- _____. *교육목회학*. 서울: 그리심, 1993.
- _____. *한국교회의 기독교신앙교육*. 서울: 목양출판사, 1992.
- _____.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이레서원, 2002.
- 진덕규. *미군정의 정치사적 인식*. 서울: 한길사, 1980.
- 최재호. *대중문화와 성경적세계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한국개혁신학회. *21세기 문화와 개혁신앙*. 서울: 이레서원, 2001.
- 한국교회문제연구소. *한국교회성장정책의 현안과 심층, 그 대안의 모색*. 서울: 솔로몬출판사, 1996.
- 황성철. *개혁주의 목회신학*.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4.
- _____. *칼빈의 교육목회*. 서울: 이레서원, 1997.
- Anderson, Leith.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21세기를 위한 교회*. 서울: 솔로몬출판사, 1997.
- Anderson, Leith. *Dying for Change*. 김철직 역, *교회를 향한 제3의 물결*.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 Berger, Arthur Asa. *Cultural Criticism: A Primer of Key Cocepts*. 김기에 역, *문화비평*. 서울: 한신문화사, 2000.
- Campbell, Thomas C. & Reiersen, Gary B. *The Gift of Administration*. 황성철 역, *은사로서의 행정*.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4.
- Fore, William. *Television and religion : the shaping of faith, values, and*

- culture*. 김성웅 역,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본) 텔레비전*. 서울: 두란노, 1993.
- Holmes, Arthur F.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기독교세계관*. Johnson, 서울: 엠마오, 1985.
- Gangel, Kenneth O. *Competent to Lead*. 황성철 역, *성공적인 경영자로서의 목회자*. 서울: 한국로고스연구원, 1996.
- George, Carl F.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서울: 요단출판사, 1997.
- Getz, Gene A. *Sharpening the Focus OF THE Church*. 권명달 역, *현대 교회의 갱신*. 서울: 보이스사 1985.
-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채은수 역, *문화속의 선교*.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7.
- Lee, Francis Ligel. *Central significance of culture*. 최광석 역 *문화의 성장과정*.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0.
- Leith, John. *Introduction to the Reformed Tradition*. 오창윤 역,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반석출판사, 1992.
- Means, James E. *Effective Pastors for a New Century*. 배헌석 김응국 공역,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서울: 나침반출판사, 1997.
- Niebuhr, H. Richard. *Christ and Culture*, 김재준 역, *그리스도와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58.
- Noll, Mark A & Wells, David F.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the Modern World*. 이승구 역, *포스트모던 세계에서 의 기독교 신학과 신앙*. 서울: 엠마오출판사, 1994.
- Oden, Thomas C. *Pastoral Theology*. 이기춘 역, *목회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 Ridderbos, Herman N. *Coming of the Kingdom*. 오광만 역, *하나님 나라*. 서울: 엠마오, 1987.

- Robert K. *Rea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영화와 영성*.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3.
- Romanowski, William D. *Pop Culture Wars: Religion and the Role of Entertainment in America Life*. 신국원 역, *대중문화전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 _____ D. *Eyes Wide Open: Looking for God in Popular Culture*. 정혁현 역, *맥주, 타이타닉, 그리스도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 Schaeffer, Francis A. *A Christian 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 문석호 역, *기독교문화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Schultze, Quentin J. *Redeeming Television*. 김성웅 역, *거듭난 텔레비전*.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5.
- Seymour, Jack L. & Miller, Donald E. Ed. *Theological approaches to Christian education*. 김재은 · 임영택 역, *기독교교육과 신학의 대화*.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Van Til, H. R.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이근삼역, *칼빈주의 문화관*. 서울: 성암사, 1977.
- Veith, Gene Edward. *Postmodern Times*. 오수미 역,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Webber, Robert E. *The Secular Saint :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 이승구역, *기독교문화관*. 서울: 엠마오, 1984), p.14.
- Wolters, Albert M.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역, *창조 · 타락 · 구속*.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2.

간행물

강종근. “AFKN-TV의 문화적 영향.” *방송연구* (1985년 봄호).

- 김만형.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목회와 신학*. 제113호 (1998. 11).
- 민병요.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해하려는 예배.” *목회와 신학*. 제94호 (1997. 4).
- 김창환. “다종교 사회에서의 교회의 전도사역.” *목회와 신학*. 제189호 (2005. 3).
- 박준규. “포스트모던 시대, 한국 교회의 전도 트렌드.” *목회와 신학*. 198호 (2005. 12)
- 박양식. “대중문화를 대하는 교회의 자세.” *목회와 신학*. 제199호 (2006. 1)
- 손봉호. “사치 풍조와 향락 문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997년 3월호)
- 신국원. “재미를 추구하는 사회와 교회.” *목회와 신학*. 제196호 (2005. 10)
- 이석열. “12시에 만나요, 신사동 교회.” *목회와 신학*. 제95호 (1997. 5).
- 정병관. “문화적 상관성으로 지역을 도전하라.” *목회와 신학*. 제91호 (1997. 1).
- 정 현. “월로우크리 교회와 예수 세미나.” *두란노 목회 시사정보* (1996년 12).
- 주승중. “예배의 회복과 설교사역,” *교육교회*. (1999년 3월호)
- 황성철. “21세기 한국교회 목회 리더십의 방향.” *신학지남*. 제281호 (2004년 겨울호)
- Knudsen, Robert D. 홍치모 역. “칼빈주의가 문화에 미친 영향.” *신학지남*. 제206호 (1985년 가을호).

학위논문

- 권오중. “현대 대중문화와 문화목회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문용만. “칼빈주의 문화관에서 본 한국교회.”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손문섭. “현대 대중문화에 대한 교회의 과제.”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송연재. “기독교와 대중문화.”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용환. “개혁주의 문화관으로 바라본 현대 대중문화 현상 분석과 비판.” 고

- 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주민. “현대 대중문화 현상분석을 통한 청소년교육 커뮤니케이션 연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주만성.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생활 속에서 느끼는 갈등에 대하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황규홍. “대중문화와 목회의 새로운 전망에 관한 소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인터넷

- <http://www.changchun.or.kr>
- <http://www.ehappy.or.kr>.
- <http://kofic.or.kr>
- <http://members.xoom.com/unicul>.